

2018.11.09.

2018년 호남의 문헌세가 학술대회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 기탁 고문서

한국학호남진흥원



목 차

[발표 1]

『백석헌집』으로 본 기양연의 문학세계 3

| 김기림(조선대학교)

[발표 2]

경향(京鄕)간의 서신 교환과 그 목적 23

-기윤진·기양연 부자의 간찰을 통해-

| 문현주(순천대학교)

[발표 3]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고문서의 현황과 가치 50

|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부록 : 사굴(楂橘) 소고(小考) 75

| 박종훈(조선대학교)

[발표 1]

『백석헌집』으로 본 기양연의 문학세계

김기림(조선대학교)

『백석헌집』으로 본 기양연의 문학 세계

김기림(조선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는말
2. 백석헌 기양연의 생애 및 생각들
3. 기양연의 작품들과 문집 양상- 백석헌집 이본들
4. 기양연의 문학 세계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진정한 의미의 지역 문화는 그 지역 사람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면밀하게 고찰하여 그 의의를 밝히는 일이 수반될 때 형성된다. 호남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 호남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의 유산을 집적하여 고찰하고 각 유산들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호남의 문화유산 가운데 과거 문인들의 문학 유산은 어느 정도 수집, 정리되어 그 존재 양상을 일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자료 안내의 선두적 역할 및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수행되었다.¹⁾ 아울러 호남에 살던 문인들이 저술한 문학 장르, 작품, 문학과 관련한

1)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4, 호남학연구원, 2013; 김대현, 「20세기 근대 호남 문집의 조사와 정리에 대하여」, 『대동한문화회 학술대회논문집』, 대동한문화

유산 등에 대한 개별 연구, 문학 및 문화유산의 현재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다.²⁾ 문학 유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개인 문집의 존재 양상을 어느 정도 한눈에 볼 수 있어 문인 개인에 관한 연구가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호남 문학의 다양한 면모를 재구축하고자 한다면 호남 문인들의 개별적 문학 양상이 많이 축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백석헌 기양연의 문학을 살피고자 한다. 기양연은 1827년에 장성에서 태어나 1895년에 지리산 우사(寓舍)에서 생을 마쳤다. 노사 기정진 문하에서 공부했고, 20대부터 과거 시험공부에 매진하여 41세에 문과에 합격하고, 약 7~8년 간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다. 당시 조선이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직면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귀양했다가 말년에 지리산에 들어가 생을 마감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글은 영성하여 문학 세계의 전반적이고 다양한 면모, 그의 인식 등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장성을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고, 평소 ‘임금을 잘 보필한 인재’로 평가되었으며,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향당의 의표’를 잃었고 ‘스승을 잃었다.’

회, 2016; 김대현·김미선,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기문화연구』 4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2)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구사희, 「근대전환기 호남유학자 우고(又顧) 이태로(李泰魯)의 『우고선생문집』과 시세계」, 『호남문화연구』 59,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6; 김순영,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국학연구논총』 13, 택민국학연구원, 2014; 진유라, 「重記를 통해 본 호남지역 郡·縣의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63, 한국서지학회, 2015; 권수용, 「광주·전남의 근대 누정 연구」, 『민족문화논총』 4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안동교, 「문중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지역의 사회와 문화: 간찰에 나타난 학술적 교유의 양상들 -홍대용과 서유구의 간찰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오준호·박상명, 「해남의 유의 조택승(曹澤乘)·조병후(曹秉侯) 부자(父子) 연구」, 『호남문화연구』 52,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2; 권수용, 「기우만의 수신 간찰과 교유의 성격」, 『영남학』 2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3; 양승천, 「송천 양응정의 생애와 우국충정 영사시 일고」, 『동아인문학』 43, 동아인문학회, 2018; 김덕진, 「『소쇄원사실』발간과 그 의의」,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2009; 김덕진, 「전라도 곡성현 향안 연구」, 『역사학연구』 60, 호남사학회, 2015; 홍영기, 「후석(後石) 오준선(吳駿善)의 의병전(義兵傳) 저술과 후학 양성」, 『역사학연구』 45, 호남사학회, 2012; 박종우, 「盤谷 丁景達의 漢詩 研究 -주제의 특징적 국면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2,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7; 박명희, 「錦湖 林亨秀의 從事官 시절 시에 표출된 悲惟 양상」, 『국어국문학』 177, 국어국문학회, 2016;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유배기 문학 연구」, 『동양고전연구』 32, 동양고전학회, 2008; 김미선,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 교육」, 『용봉인문논총』 45,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2014; 김경옥,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2010. 이 외 호남의 문인, 학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도 많다.

라고 애달파하였다.³⁾ 그 만큼 지역에서의 그의 영향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남아 있는 작품은 많지 않으나 단편적인 면모라도 드러내어 호남 문학 유산 속에서 그가 차지하는 의미 고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양연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백석헌 기양연의 생애 및 생각들

기양연의 자는 자민(子敏), 호는 백석(柏石)이다. 1827년 4월에 태어났다. 본관은 행주이고, 아버지는 기윤진(奇允鎭), 어머니는 반남 박씨로 박종한(朴宗漢) 딸이다. 행주 기씨는 본래 행주(幸州)에 살았다. 장성으로 오게 된 것은 기원(奇遠) 때이다. 기원의 동생인 복재 기준(奇遵, 1492~1521, 성종23~중종 10)이 중종 때 기묘사화(1519년)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 그 화가 집안에까지 미치자 기원은 가족들을 데리고 장성으로 와 살았고 이후로 장성 부근은 행주 기씨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기양연의 조상을 보면, 기원의 손자 기효간(奇孝諫)은 금강 선생으로 불렸고 참의에 추증되었고, 기정익은 송암 선생으로 불렸다. 기양연의 고조는 기종상이며 증조는 기태온(奇泰溫), 조부는 기재의(奇在懿)이다.

어려서 총명함이 뛰어나 학숙의 아동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줄줄 외웠다고 하며 10여 세에 이르렀을 때 이미 경전과 백가들의 글을 이해했다고 한다.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 일찍부터 과거(科擧)문장을 익혔고 명경과 공부도 동시에 했다. 당시 호남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그의 숙부였으므로 그 문하에서 배웠고, 1862년 무렵부터 문과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과거 준비를 했다⁴⁾. 그 사이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기정진도 조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기정진은 공부 방법을 알려주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며 육경을 공부하면서 주자의 저서를 참고하여 읽을 것을 권하였다. 특히 서울의 풍속에 물들지 말고 교유에 신중하라고 부탁하였다.⁵⁾ 이후 41세 되던 해(1867년,

3) “公 …(중략)…在鄉黨則爲儀表”(윤태헌, <제문>), “夫復凶音傳到耳 仰天痛哭喪吾師”(이석구, <만장>)

4) 권수용, 「간찰을 통해 본 長城 유생 奇陽衍의 과거 합격 과정」,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3, 146쪽.

5) 『노사집』권16, <송재종질양연입경설>, “最初事。宜先自立課程。課程非專讀書之謂。自寢興喫著以上。須於心裏辦得畫一規矩。期勿放過違越…(중략)…每日旅邸晨興。攝衣而坐。默念先儒千萬人中常

고종 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전직, 정언이 되었다가 지헌(持憲), 장헌(1869년, 고종 6), 사복시 정(1873년, 고종 10)에 임명되었는데 대체로 낮은 직급에만 머물러 당시 사람들 사이에 아깝다는 말도 들었다. 7여 년 동안 서울에서 관료생활을 했고, 1874년 아버지 상을 당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3년상을 치렀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봉양할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아 굳이 벼슬길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이후 장령(1878년), 부교리(1879년), 부수찬(1880년) 등에 제수되었고 1885년 정도까지 관직 생활을 했다.⁶⁾

그가 벼슬하던 전후 시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수선하던 때였다. 국제적으로 유럽 및 미국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에 열을 올렸고 이에 일본도 가세했다. 조선의 외교나 교린 대상은 대개 청과 일본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나마 국가 관리하에 놓여 있었다. 1863년 대원군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쇄국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은 국제 정세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1866년(병인년) 7월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셔먼호가 강화도로 와 상호 통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같은 해 10월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들어와 전투를 했으며, 1871년(신미년) 미국 함대가 들어와 공격하자 어재연 장군의 지휘 아래 전투를 벌였다. 1875년(고종 12)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강제적으로 인천, 부산, 원산 등을 개방했다. 기정진, 이항로, 김평묵 등 비롯한 유교 성리학자들은 ‘척사양이’를 주장하며 외국 세력의 유입, 통상을 반대했고, 조정 신료 중 김병학 같은 이도 ‘이양선이 무역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 추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가세했다.⁷⁾ 반면 신헌(申櫛) 같은 이는 개방에 중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펴나갔고, 김옥균 및 박영효 같은 일부 양반과 상업종사자들은 조선의 개화를 강조했다.⁸⁾ 이 과정에서 병자수호조규 체결, 일본의 개화된 문물을 배우기 위해 수신사 파견 등의 일이 진행되었다. 이후 갑신정변 등이 발생하면서 외국 세력, 특히 일본에게 조선 침탈의 계기를 열어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1862년 진주와 단성 지역을 시작으로 농민들의 항쟁이 시작하여 삼남 지방으로 확산되었고, 최제우가 동학교를 창도하여 민중의 도덕성을

知有己之說。細心思量 …(중략)…六經以後滂沛明白。無如朱書。案上急宜置朱節要一表…(중략)…慎勿效都下風俗。俾夜作晝也。日間接人。爲一大事。交遊不可不慎”

6) 권수용, 앞의 논문.

7) 박성순, 「丙寅洋擾와 李恒老의 斥邪上疏」,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8쪽.

8) 박은숙, 「갑신정변 참여층의 신분과 정변 참여동기」,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2000.

내세우며 신분질서를 정당하게 여겼던 당시 인식에 틈을 만들었고⁹⁾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소요하고, 민정(民情)은 어수선하고 불안했고, 대외 정책에 대해 쇠국과 개국 논의가 맞서 정국이 불안했다.

이 때 기양연은 나라 안팎의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체직되는 바람에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귀향했다. 황룡면 아곡리에 농소를 짓고 농사를 지어 직접 생계를 해결하고자 했다. 수찬에 제수되기는 했으나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고향에 계속 머물면서 독서와 농사를 겸행하였다. 1894년 동학 농민 항쟁이 일어나자 ‘윗사람을 잘 섬겼던 백성들이 이처럼 극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는 모두 위에 있는 사람이 도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일본 군대의 힘을 빌어 동학 농민들을 진압하려고 하자 ‘그들도 모두 임금의 백성인데 왜구들로 하여금 토벌하게 한다,’고 분노했고, ‘장차 조선은 이것이 단초가 되어 국가의 괴변이 생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였다. 결국 1895년 조정에서 일본 군대로 동학 농민을 진압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기양연은 과거 급제를 위한 공부 기간보다 실제 관직에 있었던 기간이 훨씬 짧았다. 관직도 주로 하급에 머물러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 시세(時勢)에 대해 상소하고자 할 때 체직되어 자신의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삼정책(三政策)>, <척사양론(斥洋邪論)>, <효책(孝策)> 등을 통해 그의 경세 사상의 일면을 가늠할 수 있다.

<삼정책>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에 관한 논의이다. 1862년(철종 13) 진주와 단성에서 백성들이 과중한 세금과 관리의 착취에 저항하여 민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박규수를 내려보내 사정을 살피라고 했고, 현지 사정을 살펴 본 박규수는 삼정의 문란함이 그 요인이었음을 간파했다. 이에 삼정이 정청(三政釐正廳)을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철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삼정에 대한 의견 및 해결책을 묻는 책문(策問)을 내려 전국의 진신(搢紳), 유생(儒生)들에게 글을 올리라고 했다.¹⁰⁾ 조정에 있는 관료부터 재

9) 최천식, 「최제우가 제시하는 유학 극복의 논리 - 同歸一體와 不然其然을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7.

10) 구연과 試策으로서 전국적으로 삼정구폐안을 수합하기로 하고, 2품 이상은 獻議를, 3품 이하와 재야의 유생에게는 시책에 응시하도록 한다. 6월 10일 철종은 구연교로 殿試을 통해 삼정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틀 후인 6월 12일 殿試의 형식으로 策問을 내리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책제를 등서하여 八道四都에 내려 보내 모두 모아 제출하게 조치하였으며, 거리가 가장

야지식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다.¹¹⁾ 당시 명망 있던 기정진, 유중교, 김윤식 등도 이에 부응하여 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때 기양연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유생의 신분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¹²⁾ 기양연은 삼정(三政)에 대해 원래 전·군·곡(田軍穀)이 하나였는데 후대에 셋으로 갈라지고 그 이름도 각각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田)은 왕정의 시작이며 백성과 나라가 의지하는 것이므로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다. 군(軍)은 성인이 부득이하게 만든 것이고 糴은 후대에 임시방편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성왕(聖王)의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삼정의 폐단이 생긴 원인은 ‘호리지습(好利之習)’이라고 했다. 사대부들이 염치가 없어서 호리지습이 들불처럼 번지고 이로 인해 백성의 고통은 끝이 없다고 하였다. 아전과 수령들이 서로 용인하면서 자기들 재산 불리는 연수(淵藪)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백성들의 고통은 늘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삼정 폐단은 ‘이두개(利竇開)-이익의 구멍이 열림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이익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삼정의 제도적 개선보다는 탐풍(貪風-탐욕스런 풍조), 호리지습부터 개혁하기를 강조하면서 특히 사대부, 수령, 아전들의 탐욕에 대해 통렬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백성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에 있는 이들-사대부, 수령, 아전-의 청렴과 정직이 우선되어야 제도도 잘 운용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동학 민중 항쟁이 일어났을 당시 ‘위에 있는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목민관으로서의 사대부, 수령들이 백성의 삶을 우선시하고 백성들의 고통 관점에서 정사를 펼쳐야한다는 경세 사상을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것이다.

<척양사론>은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난 직후에 쓴 글이다. 당시 성균관에

먼 곳은 이정청의 공문을 받은 후 70일의 제출 기한을 주었다. 그 결과 수백 명이 제출한 시권이 만여 장이나 되었다(강혜종, 『임술(1862)년 조선 삼정구폐론의 형상 양상과 성격 고찰』, 연세대 박사논문, 2017, 18쪽).

11) 『삼정책』1, 2에 당시 제출된 36명의 글이 실려 있다. 당시 관료나 학자로서 명망이 있었던 이들의 글이 실려 있다(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삼정개혁의 방향」,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9쪽).

12) 『백석헌유집』에는 <삼정책>이라고 되어 있으나 초고본에는 <壬戌擬策>이라고 쓰여 있다. 이것이 기양연 본인이 직접 쓴 제목인지 초고 쓸 때 쓴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당시 기정진은 시권의 형식을 갖추기를 원하지 않아 이름을 쓰지 않고 불에 태워버리려고 했다. 대체로 기정진 문하 및 그의 학파와 관련 있는 사람이거나 전라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 ‘의작(擬作)’이라고 쓴 경향이 강하다(강혜종, 앞의 논문, 32쪽 참조).

서 외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글로 시험을 치렀을 때 썼다. 그는 사설(邪說)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현재 외세에 대한 정책이 엄준한지 관용적인지와 같은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선 정학을 잘 닦아 밝혀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근본을 세워야 하는 문제에 관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금단양물(禁斷洋物)과 군대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선에 왔던 서양 열강국들은 식민지 개척이 목적이었고 상품 판매 및 생산 원료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¹³⁾ 기정진, 유인석, 최익현 등은 서양 외세를 사(邪)로 규정했고, 그들의 통상 요구의 의도 또한 바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 외국과의 교역으로 조선의 경제가 폐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반대했다. 기양연의 척사 논의 또한 노사 및 화서학파가 견지했던 화이구분, 척사위정의 맥락에 있었던 것이다.

<효책>은 효행 풍조를 이루려고 한 데에 대한 대책이다. 기양연은 효는 백행(百行)의 근원이며 인(仁)도 여기서 나온다고 하였다. 효의 방법은 혼정신성부터 입신양명하여 부모님 이름을 후세까지 전하는 일 등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효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 무엇이 효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행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효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효를 하나의 좋은 풍조로 만들고자 한다면 ‘효에 대해 배우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효가 무엇이며 효행이 무엇인지 배워야 잘 알 수 있고 ‘자식으로서의 도리(子職)’을 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양연은 책문(策文)을 통해 자신의 경세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관료 생활 기간도 짧았고 그나마 한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기우만도 ‘삼정에 관한 책략이 있었고 집안에서는 효우(孝友)가 순수하게 갖춰져 있었으므로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것’¹⁴⁾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3. 기양연의 작품들과 문집 양상- 백석헌집 이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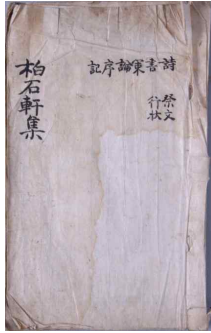
현재 기양연의 문집인 『백석헌집』은 석판본과 필사한 것, 두 가지가 전한다. 석판본 서명은 『백석헌유집』이며 2권 1책이다. 책 앞쪽에 권용현(權龍鉉)이

13) 유성선, 『華西學派衛正斥邪論의 義理精神一考察』, 『화서학회논총』 7, 화서학회, 2015, 194쪽.

14) 기우만, 『송사집』 권47, <柏石學士奇公行狀>, “雖若爲公致慨。而施措方略。三政有策。惟孝友于。家政純備。自家而國。亦不過若是耳。”

1975년에 쓴 서문, 뒤쪽에 1975년 안종선(安鍾善)이 쓴 발문이 있다.¹⁵⁾ 제1권에는 시14제 19수, 서(書) 55편, 잡저 6편, 제2권에는 서(序) 5편, 기(記)3편, 발(跋) 1편, 제문 5편, 묘갈명 1편, 행장 4편이 있으며 부록이 있다.

필사한 이본은 여러 개가 전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1>에는 시 13제 18수, 책 1편(壬戌擬策), 논 1편(斥洋邪論), 서 4편, 기 3편, 제문 4편이 있다.

<그림 2>는 편지만 들어 있는데 사위 허극에게 보낸 편지 38통, 사돈(許璿)에게 보낸 편지 11통이 있다.

또 다른 책에는 표지에 서명이 없다. 백석헌기와 백석헌 시, 백석헌 시에 대해 26명이 차운한 시. 기우만이 쓴 기양연 행장, 농소기(奇宰가 썼다.) 농소시 3편과 이 시에 대해 14명의 차운시, 농소가 완성된 후 기흥연이 써 준 시에 화답한 것과 24명의 차운시 등이 있다.

또 다른 하나에도 역시 표지에 서명이 없다. 7명이 쓴 만장, 7명의 제문, 행록 1편, 서 1편, 기 1편, 묘갈 1편이 있다.

1975년에 인쇄된 『백석헌유집』은 기존의 필사본 작품 가운데 선별하여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석판본 『백석헌유집』에는 사위 허극에게 보내는 편지 5통, 사돈인 허선에게 보내는 편지 3통이 있는데 비해 필사본에는 각각 38통, 11통이 있다. 백석헌 시와 농소 시의 경우 『백석헌유집』에는 기양연의 시만 실려 있을 뿐 차운한 사람들의 시는 실지 않았다.

한편 『백석헌유집』에는 <효책>이 실린 반면 필사본에는 없으며, 시 <洛館會話(낙관회화)>의 경우 『백석헌유집』에는 부가된 시가 없는데 필사본에는 하석

15) 이 책의 출판 사항을 보면 1978년에 대동인쇄소에서 인쇄, 발행했으며 발행인은 변시연(邊時淵)이다.

(河石)이란 사람의 시가 부가되어 있다. 석판본과 필사본에 실린 시들은 다음과 같다.

『백석헌유집』(석판본)	『백석헌집』(필사)
謹次蘆沙先生六十除夕韻 3수	謹次蘆沙先生六十除夕韻 3수
次梅塢壁上韻	次梅塢壁上韻
洛館會話	洛館會話 (*付河石韻)
輓安進士 重燮	輓安進士 重燮
洛舍偶吟	洛舍偶吟
次閔都事 致元 大人回甲韻	次閔都事 致元 大人回甲韻
洛社會吟	洛社會吟
贈人	贈人
京友晬宴	京友晬宴
柏石軒	柏石軒
農巢	農巢
農巢既成 四從弟弘衍 遂以四律賦事 相贈仍以其詩爲原韻從以和之	農巢既成 四從弟弘衍 遂以四律賦事 相贈仍以其詩爲原韻從以和之
次東塢亭韻	次東塢亭韻
別趙月臯 性家	

4. 기양연의 문학 세계

한 문인의 작품이 풍부할수록 그 문인이 가지고 있던 문학에 대한 인식, 문학 작품의 특성을 드러내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기양연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문학 자료는 영성한 편이다. 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한 글도 없고, 시도 겨우 14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기양연의 문학 인식 양상이나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글에서는 단편적으로나마 고찰하고자하며 특히 그의 시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 문인의 문학에 관한 생각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문집에 부치는 서(序), 발(拔)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양연은 단 한편의 문집 서문만 남아 있어 극히 단편적인 면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기양은 문학(문장)을 덕과 함께 논하면서 문학은 그 사람의 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이 남긴 시와 문이 겨우 약간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격률이 간이하고 밝으며 체제는 부섬하고 통창하다. 전중하고 온화한 맛이 있고 뜬 이슬이나 속된 모습들이 전혀 없으니 한번 보면 그 덕이 있는 사람의 말임을 알 수 있다. 스승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겠는가? 후에 공의 덕을 알고자 한다면 이것만 보아도 족하다.

이 글은 춘파 강인회(姜寅會, 1807~1880)의 유집(遺集)에 쓴 서문이다. 강인회는 노사 기정진의 문하생이었다. 기정진은 강인회의 문장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양연은 강인회의 문장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먼저 강인회가 덕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강인회의 작품에 대해 ‘격률이 간이하고 밝다.’ ‘체제는 부섬하고 통창하다.’ ‘전중하고 온화한 맛이 있어 속된 모습이 없다.’ 등의 말로 평가했다. 그리고 강인회 작품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게 된 근본으로 ‘덕(德)’이 있음을 말했다. 즉, 안에 덕(德)이 있어야 훌륭한 문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편 내면의 덕은 배움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기양연은 강인회에 대해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며 문예를 일찍부터 성취했다.’라고 하면서 강인회가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고 특히 문예적 재능이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의 문학 작품이 속된 기미가 없이 ‘덕 있는 사람의 말’과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데에는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생각은 서문 첫머리에서도 나타난다. ‘노사 선생은 도학과 문장이 으뜸이었고 그 문하의 선비들이 많았는데 그 덕의 향기를 가장 오래 입은 사람은 춘파 강공이었다’라고 하였다. 강인회 문학에 대해 쓰면서 노사 기정진의 도학과 문장을 첫 머리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기정진의 도학과 문장이 강인회 내면의 덕 형성에 기여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인회 작품이 이른바 ‘덕 있는 사람의 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기양연의 시는 14제 19수이다. 서울에서 지낼 때 쓴 시, 귀향하여 농사지으면서 쓴 시, 스승인 기정진 및 친구에게 준 시들이다. 본 글에서는 내용에 따라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고향-일상 속 수양

기양연은 1880년 이후 서울에서의 관료 생활을 접고 귀향하여 살았다. 이 때

아곡리에 농소를 짓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농소를 지은 이유를 밝히면서 ‘원래 가난했는데 흉년까지 만나니 생활하기가 어려워 농사를 짓고자’ 했다고¹⁶⁾ 하였다. 그리하여 살던 곳-산 중턱에 있던 집-에서 들판으로 내려와 조그만 농소를 짓고 농사짓는 생활을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가난해지기는 쉽고 가난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得貧容易脫貧難
계책 세우느라 온갖 수고 할 것은 없으니	計策不須費百般
도롱이 비옷 술 마신 후 입은 들 어떠리	襤褸何妨酒後着
벼, 마 등 빗속에서 보기도 좋구나	禾麻正好雨中看
척박한 밭이어도 힘껏 하면 가을에 응당 잘 여물 테고	薄田竭力秋應熟
누추한 집이어도 몸 들이니 분수에 맞게 편안하네	陋屋棲身分可安
아침 저녁 농사 이야기에 세상일 잊으니	日夕農談渾忘世
눈 앞 띠끌 속 옥당관이 꿈 속과 같네 ¹⁷⁾	前塵如夢玉堂官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한 후 마주친 현실 속에서 깨달은 건 ‘가난해지긴 쉽고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농사짓는 일이었다. 땅은 척박하고 힘들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또한, 누추한 집이어도 자신의 분수에 맞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였다. 그는 시에서 농소와 옥당관 두 곳을 동시에 떠올린다. 옥당관은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임금과 가까이 있고, 관료들과 함께 일을 하던 곳이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과거 20여 년을 공부에 매진하였다. 옥당관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옥당관의 일은 ‘열심히 힘껏 한 만큼 수확’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이며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공간이다. 반면 농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찮은 곳이지만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세속의 선망이 되는 옥당관을 뒤로하고 누추한 농소에 기거하지만 그 편안함의 가치를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농사짓는 일은 일상 삶 속에서 수양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農巢>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16) 『백석헌유집』 권1. “余素貧 歉荒後尤索然 欲爲廣農計 而所居腰於山遠於野 耕種耘穫學多妨礙 乃於洞口外 數畝地 借得一小屋 挈老妻來寓”

17) 『백석헌유집』 권1. <農巢既成 四從弟弘衍 遂以四律賦事 相贈仍以其詩爲原韻從以和之>

늘어가는 때 농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人言暮境不堪農
가난한 집은 농사에 힘써야 한다고 나는 말하지	我謂寒家所務農
밭가는 이여 내가 세상 잊었다고 괴이히 생각지 마시오	耕夫休怪吾忘世
다만 가난을 구하려고 이 농소 지었으니	只爲救貧設此農

남은 생애 농사에 취미 부치니	殘年趣味付之農
스무 개 입 생애가 다만 농사에 달렸구나	廿口生涯只在農
밭 갈고 쫄 베는 늙은이 모두 좋은 친구들이어서	耕翁樵叟皆良友
밭 가운데 늙은 농부 되는 것도 아주 좋다네	好是田間作老農

마음 밭 다스리는 일 또한 농사이니	經理心田亦一農
이 농사 야인 농사보다 나은 듯하구나	茲農勝似野人農
인으로 밭 갈고 의로 김 매기를 열심히 하는 것	仁耕義耨孜孜地
가히 인간의 최상 농사라고 할 수 있다네 ¹⁸⁾	可做人間最上農

농사짓는 일은 젊은 사람들도 견뎌내기 쉽지 않은 노동이다. 나이 들어 농사를 짓고자 하는 기양연에게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말한다. 그도 잘 알고 있지만 농사를 그만 둘 수 없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가 농소를 짓고 농사일에 직접 뛰어들 것은 생계를 위해서이다. 양반 사대부이며 서울에서 중앙 관료로서 지냈다가 농부가 되는 일이 쉽지 않은 터이지만 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생계임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리고 자신이 살 작은 집에도 ‘農巢’라는 이름을 붙인다. 관료 생활을 접고 귀향하여 온 사대부들은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렸음을 드러내고자 하며 ‘은일’의 의미를 부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기양연은 자신의 귀향을 ‘은일’과 연계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제 포부를 펼칠 수 없는 정치 현실에 좌절하고 귀향하였는데 그의 앞에 닥친 현실은 가난, 생계 챙기기였고, 그는 그것을 부정하는 않는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김녹휴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옛 사람들은 노년을 위해 계획하면서 등과 같은 글자로 호를 짓고 시도 지어서 그 풍격이 저절로 별다르도록 하였다. 지금 친구 자민은 녹봉을 사양하고 물러나와 농사지었다. …(중략)… 폐려를 떠나서 가까운 밭으로 가니 머무를 데가 없을 수 없고

18) 『백석헌유집』 권1, <農巢>

머무를 데를 마련하니 이름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실심으로써 실사를 행하니 부끄러울 것이 없을 뿐이다. 평소 행동과 평소 말이 또한 실질에 힘을 썼다.¹⁹⁾

많은 이들이 은일을 표방하면서 당호에 어(漁) 초(樵) 등의 글자를 넣고 시도 지으면서 남다르게 보이려고 하는데 기양연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것을 ‘실심, 실사’라고 하였다. 이는 기양연이 일상 속에서도 말과 행실을 일치하고자 하는 수양의 한 면모, 그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짓는 일이 생계로서 당연한 일인 만큼 현실 속에서 생계를 위해 몸소 일하는 이들 곧 경옹(耕翁), 초수(樵叟)들은 그의 동료가 된다. 함께 농사지으며 농사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들을 ‘좋은 친구’라고 함으로써 들판의 농부로 함께 하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기양연은 단순히 농사짓는 일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시상은 야전(野田)에서 심전(心田)으로 확장된다. 실제 땅을 경작하여 수확물을 거두어들이는 일과 마음을 잘 다스려 진리를 얻는 일이 동일함을 깨닫는다. 땅을 일구는 데에는 쟁기나 호미 등의 도구를 쓰는 반면 마음의 밭을 일구는 데에는 인의(仁義)라는 도구를 쓴다고 하였다. 실제 농사나 마음의 농사는 꾸준함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많이 얻을 수 있다. 기양연은 인의로 밭 갈기와 김매기를 성실히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농사라고 단언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한 농사였지만 그것을 수양의 자료로 전환하여 사유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늙은 잣나무 정연하고 오래된 바위 푸르러	老柏挺然老石蒼
뜰을 지탱하고 집에 그늘 드리우네	撐吾庭砌陰吾堂
울곧은 자태 어찌 닳고 갈라지랴	貞姿豈肯受磨泐
굳센 가지 눈 서리도 능히 업신여길 수 있네	勁幹偏能傲雪霜
바르고 곧음은 두보가 읊은 데서 연유했고	正直由來吟杜老
오래고 기이함은 가히 미원장이 절하게 하네	古奇可使拜元章
누헌 지움에 물을 취함은 우연이 아니니	攄軒取物諒非偶

19) 김녹휴, “古人語晚計 每稱漁樵以號以詩 風格自別 今吾友子敏 辭祿退耕 田是青穰 業是箕裘 何稱說之有卽其詩離弊處 就近田不可無巢 有巢不可無戲題 噫 以實心行實事 無愧怍而已 庸行庸言 亦其務實歟 謹次其韻”

남은 생애의 좋은 두 벗일세

棲息殘年二友良

이 시는 자신의 호인 ‘백석’에 대한 해명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집 뜰에 오래된 잣나무가 올곧은 모습으로 있고, 나무 아래 오래된 바위가 있었다. 잣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항상 푸르고 바위는 풍설우(風雪雨)에도 전혀 변함도 없고 갈라짐도 없다. 이 둘은 시절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잣나무의 바르고 곧은 덕에 대해 두보는 그것이 ‘조물주의 공덕이며 잣나무의 재목이 너무 커서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못할 것’²⁰⁾이라고 하였다. 미불은 세속의 평판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큰 바위를 보고 기뻐하며 절을 하고 형이라고 불렀다.²¹⁾ 그들은 잣나무와 바위가 변함없음을 칭송한 것이다. 기양연 또한 두 가지가 지닌 덕을 수양의 자료로 삼고 있다. 가까이 있는 자연물을 마음을 닦는 조력자로 상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수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서울-활기찬 생활과 세상에 대한 포부

『백석현유집』에는 기양연이 서울에서 생활하던 때의 시가 실려 있다. 그의 서울 생활 모습은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편지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주로 과거 공부를 위해 서울 생활을 하던 때의 모습으로서 서울 소식, 서울에서 맺은 인맥 관리를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고민, 각종 시험에 대한 정보 등이 들어 있다.²²⁾ 시로는 <洛社偶吟>, <洛社會吟>, <洛館會話> 등의 작품이 있다. ‘洛社’라는 표현을 보면 당시 서울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 창작활동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들이 과거 시험공부 시기에 쓴 것인지, 관직 생활 때 쓴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장부 또는 사대부로서 세상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무슨 일로 고향 멀리 떠났냐고 내게 물으며
든 세상 꽃다운 이름 한바탕 꿈과 같다고 하네

問余何事遠離鄉
浮世榮名似夢場

20) 두보, <古柏行>, “扶持自是神明力 正直元因造化功 大廈如傾要梁棟 萬牛回首丘山重 …(중략)…志士幽人莫怨嗟 古來材大難爲用”

21) 『송사』 권444, <열전> 203, <문원> 6-미불. “州治有巨惜狀奇醜 芾見大喜曰 此足以當吾拜 具衣冠拜之 呼兄 又不能與世俯仰 故從士數困”

22) 권수용은 기윤진과 기양연이 1862년부터 1874년까지 주고받았던 편지를 살폈다. 편지 내용은 부자의 일상 내용, 과거시험 공부 과정, 관직 생활 모습, 국내의 여러 상황, 향촌의 상황 등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권수용, 앞의 논문 참조).

병 있어 전날 밤 시를 잠시 그만 두었는데	有病前宵詩暫廢
구름 없는 오늘 밤 달빛 더욱 휘황하구나	無雲今夜月尤光
여러 달 동안 친구 이야기 보고 듣고	數朔耳濡良友話
십 년의 몸은 주인 집에 익숙하네	十年身慣主人堂
나그네 근심으로 내 마음 흔들이 마소	莫把羈愁擾我意
장부의 바다 같은 마음 먼 데까지 포용하는 게 귀하다네 ²³⁾	丈夫胸海貴包荒

초고본 『백석헌집』을 보면 이 시 아래 <付河石韻>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그 시의 시인은 ‘성 안에서 살지만 한적하여 마치 궁벽한 시골 같으며 청운의 뜻도 다 이루지 못했고, 시 짓는 솜씨도 졸렬하여 태반이 볼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⁴⁾ 기양연의 시는 이에 대한 응답이었던 듯하다. 서울에 와 있는 기양연에게 누군가 ‘왜 고향을 떠나왔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기양연은 이 질문에 그 동안 서울 생활을 이야기 한다. 여러 달 동안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여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자기가 살고있는 집 주인과는 이미 10여 년이 되어서 친숙하다고 하였다. 묻는 이는 ‘타향인 서울’이라고 여기는 반면 기양연은 서울이 이미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그네 근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 말라고 요청한다. 기양연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장부라면 나라의 궁벽진 곳까지 다 포용해야하므로 서울과 고향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포항(包荒)’은 대개 왕이나 관료가 먼 곳 백성까지 모두 보살펴야하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 사대부로서 백성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잘 챙기고자 하는 경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당시 기양연의 포부였다.

그의 이러한 포부는 <洛社偶吟>이라는 시에서 ‘지조와 절의는 험함과 평이함을 하나로 여기면서 장부라면 공업을 쌓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져야 한다.’²⁵⁾ 말에서도 나타난다. 변하지 않는 절의를 바탕으로 삼아 힘든 때나 태평한 때나 한결같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경륜을 펼쳐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공업을 이루어 훗날 영원히 이름을 드날릴 것이라는 큰 포부를 보여준다.

세상에 나아가 경세의 뜻을 펼치려는 희망을 품고 있어 기운찬 모습은 다른 시에서도 드러난다.

23) 『백석헌유집』 권1, <洛館會話>

24) <附河石韻>. “城市閑居似僻鄉 琴書看作利名場 平生未了靑雲志 今夕何遲皓月光 當世炎涼都屑屑 丈夫意氣自堂堂 病餘強欲成詩話 鈍拙還兼太半荒”

25) 『백석헌유집』 권1, <洛舍偶吟>. “志節無如一險夷 仁時麟鳳勇時熊 …(중략)… 丈夫做得甚功業 百載流傳萬口碑”

더운 때 성 안에 들었다 차가운 바람 부는 때 되니	署令入閨到冷飊
정처없이 분주히 사는 심사 어수선하기만 하네	棲遑心事正搖搖
산 언덕 단풍으로 치장하여 이슬 머금은 꽃같이 빛나고	岸粧楓葉霜華映
술잔에 든 국화 향기 술맛을 조절하네	樽泛菊香酒味調
가을날 가장 좋은 건 이런 날 많은 것	秋景最欣多此日
밤 이야기하며 날 새는 걸 꺼리지 않는데	夜談莫憚達明朝
좋은 날 적적하게 보낼까 저어되니	更怕良辰寂寞過
호탕하게 노래하고 통소도 불러보네 ²⁶⁾	爲放浩歌且弄簫

이 시는 서울에서 사람들과 가을 단풍 경치를 즐기면서 쓴 시이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기운이 도는 가을에 접어들자 온 산에 단풍이 들고 이슬까지 내려 햇살에 반짝인다. 그 아래에서 국화 향기 가득한 술잔으로 흥을 돋우며 밤새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가을 좋은 날을 맞아 경치에 젖어 맘껏 즐기는 호탕함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는 세상일에 대한 근심이나 가을을 맞이하는 쓸쓸한 정서는 전혀 없다. 이처럼 서울 생활 중에 쓴 시는 타향에 온 나그네로서의 향수, 근심보다는 임금 곁에서 세상을 다스려 공업을 쌓으려는 희망을 보여주며 서울을 이미 익숙한 공간, 친구들과 가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맘껏 즐기면서 호탕한 정회를 보여주고 있다.

3) 스승에 대한 존경, 벗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백석헌유집』 속에 있는 시들은 그의 스승과 친우에 대한 존경과 친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늙은 나이에도 부모 그리니 고인의 풍도라	衰齡孺慕古人風
선생의 덕 무궁함을 더욱 믿게 되네	益信先生德不窮
이날 슬픔 더하니 정씨의 마음	此日倍悲鄭氏志
금년에 능히 거원의 공을 이루었네	今年能化蘧瑗功
한 표주박 누항에 가난해도 즐기니	一瓢巷陋貧而樂
아홉 길 높은 산과 긴 연세 또한 같구나	九刃山高壽亦同

26) 『백석헌유집』 권1, <洛社會吟> 2수 중 제2수.

내가 다행히 친히 가르침 받는 자리를 더럽히며
 옷자락 걷고 몇 달 동안 그 자리에 앉았었네²⁷⁾

小子幸忝親炙地
 搗衣幾月坐春中

이 시는 노사 기정진이 60세 되는 해 제야(除夜)에 쓴 시에 대한 차운이다. 기정진은 세월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부모님 은혜를 조금도 갚지 못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토로했다.²⁸⁾ 기양연은 기정진이 정자와 거백옥의 마음과 같음을 칭송했다. 정자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일날이면 갑절이나 더 슬프다.’고 했다. 자기를 낳고 길러 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존재하는데, 생일날 부모님이 안 계시므로 그 공을 보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백옥은 50이 되어서야 그동안 살아온 행적이 그릇되었음 알았다. 제자였던 기양연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승이 60세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효의 실천이며 고인의 품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덕이 무궁함’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누추한 곳에서 가난함을 즐겁게 여기며 사는 모습도 덕의 한 모양이다. 기정진의 효심, 안빈낙도하는 덕 등은 장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에게 기정진은 ‘효행으로 시작하여 그 안에 문장과 덕업이 함께 있는’ 큰 스승이다. 기양연은 그러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스승의 덕과 행실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은거지 한 조각 동쪽 언덕에 마련하고
 한가히 지내니 말년의 취미 즐구려
 50여 년 동안 황권을 어루만지더니
 백운 근처에 정자 지어놓고
 벗 불러 아욱 고사리 삶아 먹이며
 아이와 손자 함께 뽕나무 가래나무도 심는구나
 한 번 신선 집 문 두드리려하나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산 사이에 십 리 떨어져 다만 향기로운 소문만 듣고 있다네²⁹⁾

菟裘一片卜東岡
 適軸殘年趣味長
 半世摩挲黃卷裏
 數椽結構白雲傍
 爲延朋友烹葵蕨
 留與兒孫植梓桑
 一叩仙扉久未遂
 隔山十里但聞香

이 시는 조의곤(曹毅坤, 1832~1893)의 동오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의곤은

27) 謹次蘆沙先生六十除夕韻

28) 『노사집』 권2, <丁巳除夕>, “光陰六十去如風。此歲將除感不窮。百事長遊悔吝地。一毫無報劬勞功。面皮體髮都來變。日月天星胡乃同。咫尺應通歸侍路。餘生且付澗冰中”

29) 『백석헌유집』 권1, <次東塢亭韻>

고창 출신으로 노사 기정진 문하에서 공부했고 평생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조의곤은 기정진의 상을 다 치른 후 고창으로 돌아가 월산리에 있는 반등산에 정자를 짓고 학문에 몰두했다.³⁰⁾ 정자를 완성하고 나서 시를 짓자 최익현, 조성가, 정재규, 오준선 등 기정진 문하 동문들이 차운했다. 기양연은 동오정의 위치, 경치, 동오정에서의 독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에 담지 않았다. 대신 조의곤이 황권을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신선이 살 만한 듯한 좋은 공간에 생활 장소를 만들어낸 것을 부러워한다. 그곳에서는 벗에게 아욱, 고사리나물 대접하기, 손자들과 뽕나무 가래나무 등을 심어 후손을 위해 준비하는 조의곤의 모습 등을 담아냈다. 이러한 일들은 일상적인 삶의 연장이다. 직접 농사를 지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양연의 입장에서는 동오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곳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배어난다. 그리하여 동오정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동오정에서 여유있는 만년 생활을 보내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백석헌 기양연의 생애, 경세에 관한 생각,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당시 신분상 위에 있는 사대부들의 잘못을 통렬하게 질책하며, 백성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경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시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농부로서의 생활을 그려내는 진솔성을 보였다. 또한, 서울에서의 시는 대체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즐거움과 경세에 대한 포부를 그려내고 있으며, 아울러 스승에 대한 존경, 친구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글은 기양연 문학 세계 중 지극히 미미한 면모만을 서술했을 뿐이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글들은 기양연 문학 및 사상을 상세하게 드러내기에

30) 기우만, 『송사집』 권47, <東塢處士曹公行狀>. “己卯冬. 先生疾革. …(중략)… 公若喪父. 殯殮葬祭. 誠信兩摯. 心喪三年. 治任而歸. 卜築東岡. 不求聞達. 簞瓢自樂. 同門推先進. 後生學者欲聞先生之道者. 求之於公. 庠舍不能容. 而公推明先生之道” 조의곤은 동오에 정자를 짓기 시작할 때 기정진의 기문을 받아 두었다. 기정진 사후에 동오정을 완성했다(조의곤, 『東塢集』 권3, <東塢記>).

는 충분하지 않다. 그와 관련한 자료 즉 가족 및 친지들과 주고받은 편지나 글들-시, 산문-, 그에 관한 주변 사람들이 기록한 자료들이 더 수집, 축적되고 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그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면모들을 드러내 그 의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 참고문헌

『백석헌유집』, 대동인쇄소, 1978.

권수용, 「간찰을 통해 본 長城 유생 奇陽衍의 과거 합격 과정」,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3

박성순, 「丙寅洋擾와 李恒老의 斥邪上疏」,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유성선, 「華西學派衛正斥邪論의 義理精神一考察」, 『화서학회논총』 7, 화서학회, 2015

최천식, 「최제우가 제시하는 유학 극복의 논리 - 同歸一體와 不然其然을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8,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7.

[발표 2]

경향(京鄕)간의 서신 교환과 그 목적

-기윤진 · 기양연 부자의 간찰을 통해-

문현주(순천대학교)

경향(京鄕)간의 서신 교환과 그 목적

- 奇允鎭·奇陽衍 부자의 간찰을 통해 -

문현주(순천대학교)

< 목 차 >

1. 서론
2. 경향간의 서신 교환
3. 서신 교환의 목적성
4. 결론

1. 서론

본고에서는 장성 행주기씨의 기윤진과 기양연 부자가 주고 받은 간찰을 통해 경향간에 교환했던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양연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신 작성의 특정한 목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흔히 편지라고 부르는 간찰은 인간사의 모든 내용이 담긴 문서로, 간단한 안부 편지부터 학문의 토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다양한 것이며 현존하는 양이 많은 편에 속하는 고문서이다.¹⁾ 물리적 양이 많은 만큼 그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와 위치, 지역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남아 있다. 가깝게는 부자 간, 사제

1)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480쪽.

간, 친구 간에서부터 더러는 관직자 간에 공적인 일도 간찰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따라 각각의 편지 또한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경향 간 교환 서신은 『부자유친-조선시대육아일기·부자왕복편지』²⁾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조선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에서 탈초번역한 책에 실린 기윤진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23통, 기양연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105통이다. 이는 서로 간에 물리적 거리감이 있다는 면에서, 한 지역 내에서 편지를 교환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며 더 좁게는 남이 아니라 부자관계에서 주고 받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발신인과 수신인이 서울과 지방이라는 범주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주제와 경향이라는 틀 안에 있기에 생겨나는 특정한 목적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경향간의 서신 교환

서로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간찰 자체가 가지는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다. 기윤진 부자의 편지도 그와 바를 바 없이 객지 생활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노쇠한 아버지를 걱정하고 집안을 살피는 내용으로 편짓글이 시작된다.

그저께 보낸 편지는 이미 받아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사이에 눈비가 크게 일어서 추위가 심해지는데 객지생활은 편안하며 공부하는 것은 얼마만큼 정밀하게 익히는 맛이 있느냐? 매우 마음이 쓰인다. 나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서 달리 말 할만한 것은 없다.(1864-12-05, 95)

지난 5월 능촌 편에 부친 편지는 진즉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늦더

2) 『부자유친-조선시대육아일기·부자왕복편지』, 조선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자료·연구총서, 심미안, 2012, 76쪽.

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은 한결같이 좋으시고 대소가도 모두 편안하며 아이들도 별탈이 없는지요? 매우 그립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으며 송독 또한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1866-07-12, 140)

편지의 시작은 항상 지난 번 어느 편에 부친 편지는 잘 받았는지의 여부이다. 중간에 유실되는 일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를 반드시 명기하고, 내용 작성을 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몇 차례의 편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기양연은 1864년 8월 전주에서 실시한 증광시 초시에 次上으로 합격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를 하였는데, 1867년 3월에 대과에 급제하여 가을부터 관직생활에 들어갔다.³⁾ 그리하여 편지에도 아버지로서 아들의 공부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많은 편이다.

1) 서울 정세

서울과 지방 사이에 이루어지는 서신의 교환에 중요 주제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洛報’ 즉 서울 소식이다. 상호간의 거리가 멀수록 각자가 서울 소식을, 지방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늦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에 거주하던 기운진과 서울에 기거하던 기양연은 거리상의 이유로 서로의 소식을 즉각 알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서로의 편지를 받아보기 이전에도 서울에서는 남쪽 지방의 소식을, 장성에서도 서울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신빙할 수가 없기에 상대방의 편지를 직접 받고자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 소식은 바람으로 전해오는 것은 많으나 정확한 기별이 없어서 답답하다.(1872-01-06 기운진, 322)

신년의 소식은 비록 대부분이 잘못된 말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1874-01-28 기운진, 413)

날이 매우 가물어서 기호지방은 장차 보리농사를 거둘 가망이 없다고 하며, 남쪽 지방은 이것을 면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해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

3) 『부자유친-조선시대육아일기·부자왕복편지』, 조선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자료·연구총서, 심미안, 2012, 76쪽.

어 답답합니다. (1866-04-08 기양연, 130)

이와 같이 간찰을 작성할 때 보통 신변이나 날씨 이야기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의 예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아무래도 國事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물론 기양연의 경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 관직에 몸을 담았으므로 중앙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굳이 관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한 소식은 조보 등 여러 형태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거주자보다는 빨리 접할 수 있었다. 조보는 승정원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관보로 여기에는 조정의 소식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국왕의 명령과 지시, 국왕의 동정과 건강 상태, 과거 시험 실시, 관리의 임명과 이동 및 승진에 대한 사항 등이었다. 조보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내용을 접하는 것도 가능했다.⁴⁾ 기윤진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서울의 소식을 듣는 바가 있지만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정의 정사, 상소, 비답 등의 생생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달의 정사를 分撥(분발)한 것과 상소축을 아울러 부치니 보신 후에 여러 집안에도 돌려가며 보시면 좋겠습니다.(1873-06-11, 357)

상소문과 비답 베긴 것은 별지에 있으니 살펴보신 후에 여러 집안에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1873-06-20, 362)

부자가 서찰을 주고 받았던 19세기 후반은 내외적으로 복잡한 시기였다.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와 함께 삼정이 문란해지고 농민의 봉기가 연이어졌으며 대외적으로는 병인양요 등을 비롯하여 서양의 문호 개방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국내의 상황도 여의치가 않은데 이제껏 없었던 외세의 공략을 받게 되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입장로서는 서울에서 보내주는 소식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기양연이 아버지에게 전한 당시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본 우반동과 우반동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269쪽.

월초에 북경에서 자문이 나왔는데 대개 서양 오랑캐가 공갈한 뜻을 전한 것입니다. 곧 회답자문을 들여보냈는데 이것을 함께 베껴서 보내드리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저 허황된 공갈은 깊이 염려할 것이 못될 것 같습니다.(1866-07-12, 140)

요즘에는 서양 선박이 네 군데나 정박하여서 멀게는 용강과 황주 등지에, 가깝게는 강화도와 교동도 등지에 출몰했다고 합니다. ... 비록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라도 반드시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건대 먼 고을에서 소요스런 말들은 반드시 더 부풀려서 나올 것이니, 이로 인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내구 종형은 혹시 출발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더디고 있으니 혹 (양선의 소요가 있다는) 와전된 말로 마음을 뺏긴 것인지요? 이것이라면 크게 그렇지 않으니 출발을 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1866-07-16, 143)

근래에 서양의 선박이 와서 당진에 정박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1866-07-23, 146)

처음에는 크게 소란스러워서 다른 나라 선박이 혹은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전멸을 당한 후에 자못 진정되었다고도 하는데 아직도 어수선하게 떠도는 설이 있으니 그 자세한 것은 멀리에서 종이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問情記 한 통도 함께 베껴 올리니 앞의 편지에서 아뢴 것과 함께 합쳐서 보시면 다른 나라 선박의 소요설의 전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신 후에 여러 집에도 두루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866-08-05, 148)

서울이 이와 같으니 먼 고을이 소요스러울 것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필시 잘못된 설이 장황히 떠돌 것이니, 부디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각 도에서 異船에 대한 장계가 계속 이어져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아마도 와전된 설 같습니다.(1866-08-20, 161-163)

양선이 물러가고 소동을 일으킨 소문도 저절로 소멸되었습니다. 전후의 문적을 별지에 적어 보냈으니, 보신 후에는 여러 집에 돌려 보시고 곧바로 찾아다가 앞편지에 베껴서 보내드렸던 것과 함께 연폭으로 만들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1871-05-29, 285)

장성은 훼손될 곳이 다만 4개의 서원으로, 외연, 수산, 학림, 죽림 서원인데 이 외에는 모두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덕천은 실로 李友와 조대감의 힘을 입었으니 이것은 두터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1868-08-08, 210)

기윤진은 서양의 선박이 국내에 들어와 정박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 아들에게 질문하였고, 기양연은 서양 오랑캐와 관련하여 북경에 보내는 회답자문, 問情記 등 전후의 문서를 따로 적어서 보내 주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 안심 시켜주며 과거시험을 위한 집안 사람의 행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 관리 任免

서울의 전반적인 정세 이외에 기양연이 빈번하게 전하고 있는 소식은 都政에 대한 것이다. 그가 도목을 베껴서 내려보내 주면 기윤진은 이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어 보았다.

完伯은 흑자는 다음 달에 체직되어 나간다고 말하고, 흑자는 春科 전까지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누가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서 사람의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1864-10-21, 87)

都政은 지난 27일에 하였는데, 본 도는 김종환이 이조정랑으로써 차정되어 개성 경력이 되었습니다. ... 본도의 수령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1865-01-09, 104)

도정은 22일에 했는데 호남지역 사람은 처음 벼슬에 오른 사람과 수령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사람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본 고을 수령은 도정 전에 黃州로 이직했고, 민세호가 괴산에서 본읍으로 이직해왔는데 판서 이우의 처남이고 대원군의 외6촌으로 성격이 자못 순실하다고 합니다. 대사성은 조경하입니다.(1865-12-24, 121)

조정 주요 관직자의 임명과 교체를 기본적으로 전달하면서 주요하게 다룬 것은 대개는 전라도 관찰사나, 전라도내 열읍 수령의 임면과, 호남 지역 사람의 벼슬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지역 사회에서 양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했는데 그런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사회 내의 관직자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3) 과거시험

나라의 정세나 관원의 임명에 이어 또다른 중요한 정보는 과거시험의 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경사가 곧 국가의 경사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를 널리 알리고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린다는 뜻으로 거의 매번 別試를 실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과거를 준비하던 양반들은 식년시 뿐만 아니라 부정기 시험인 별시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왕실의 근황은 시험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김양연이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매우 중요했다.

洪大妃殿이 바야흐로 흥진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부터 움직하고 있습니다. 평상을 되찾은 후에는 습慶이니 다시 증광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1866-04-08, 130)

다음달 17일은 곧 존호를 올리고 진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東朝母가 임한 지 40년이 되어 경사라고 칭할 수 있어서 상께서 친히 행차하여 진작례를 하고 慶科는 증광으로 마련하여 가을 사이로 날짜를 택한다고 합니다.(1873-03-11, 337)

이달 8일 묘시에 원자가 탄생하였는데 14일에 陳賀한 후 慶科는 增廣으로 마련하였습니다.(1874-02-15, 418)

9월 4일에 임금이 수릉으로 행차하는 것으로 인해 동당은 11일로 미루어졌고, 향시는 원래 정한 날짜에 설행한다고 합니다.(1866-08-16, 156)

가례는 정시일을 지내고 행한다고 하고 정시는 25일로 물러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포는 되지 않았으며 가례 후에는 수렴청정도 함께 거둘 것이며 존호를 올리는 경사로 인해 가을 사이에 증광시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1866-02-29, 125)

기윤진은 이처럼 아들이 전해주는 시시각각의 서울 소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근 실시된 인사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관직에 올랐는지, 누가 어떤 사안으로 상소를 제출하였는지, 왕의 병세와 왕실의 안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는 지나간 과거 시험의 시관과 출제된 시제에 대한 정보 또한 같이 제공하여 고향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감시의 시관은 제 1소는 신응조 조석원 임효직이고, 2소는 박영보, 김상현, 조성교입니다. 2소의 시제는 '사람은 교화시키고 서학서는 불태워 선왕의 도를 통하게 하라'이고, 부제는 '육가가 항상 한고조 앞에서 시와 서를 말했다'입니다. 1소의 시제는 '제왕궁이 모두 봄이로구나'이고 부제는 '화초시'입니다.

미리 전해 듣는 과거 시험 일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최근의 동향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시험이 갑자기 선행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과거가 시행될 만한 일과 관련된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했다. 당시 그러한 사례는 많이 있었는데 경북 안동의 양반 김병황이 남긴 '김병황일기'에도 같은 예가 있어 잠깐 살펴보면, 김병황은 1882년 1월 21일에 느닷없이 다음 날 관학유생 응제시를 춘당대에서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그의 친지들은 과거 시험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이미 떠나버린 뒤였고, 자신의 사내종도 없었던 터라 알릴 방법이 없었다.⁵⁾ 이처럼 준비할 새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선행되는 예가 아니고서는 과거 선행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전달하면 고향에서 과거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과거 선행 시기에 대한 정보의 제공 뿐만 아니라, 실시되는 과거에서 합격자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전하기도 했다.

館錄은 이미 7인을 취하였는데 강경과 제술을 무론하고 일찍이 翰注를 거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조만간 除換이 있을 것 같은데 노론쪽은 강적이 많아서 서울의 재상 집안에도 장차 10여 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궁벽진 곳에 사는 사람은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1868년추정, 431)

5) 전경목, 「김병황의 과거 응시 전략과 그 함의」, 2018.

동향의 혹은 같은 마을 내에서 과거 합격자가 나오는 것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김양연은 아버지에게 마을에서 과거시험을 위해 올라오는 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시험 후에는 호남의 합격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였다.

감시가 점차 가까워오는데 한 마을 사람 중에 근래 서울에 들어온 사람은 있는지 오직 날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1866-07-12, 140)

제2소의 방을 베풀어서 올립니다. 1소의 방은 심히 긴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뺏습니다. 그러나 대저 매우 현란하기는 1,2소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남에서 합격한 사람은 오직 함중 한 사람 뿐이라고 합니다. 근래에 과거의 소요로 인해서 며칠간 과거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1865-02-21, 110)

이와 비슷한 예로 안동의 유생이었던 김병황은 1879년 달성 향시에 재종식인 英老 어른이 장원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면했다며 안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1885년에는 증광시 감시 초시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낙방하자 분하기도 하고 동시에 탄식만 나온다고 하였다.⁶⁾

앞서 이야기한 서울 정세, 관리 임면, 과거 정보 등은 조보에 반포되기도 전에 김양연이 소식을 접하여 미리 전달하는 예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안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편지를 비밀스럽게 보관할 것을 아버지에게 주문하기도 하였다.

과거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인해 감시는 9월에 박두해서 하는 것으로 문적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마 내일 조보에 반포될 것입니다.(1869년 6월 추정, 429)

서양인은 전후로 모두 8명인데 곧 죽이고 체포하여 아직까지 삼엄하며, ... 이것은 모두 확실한 소문이지만 조보에는 반포되지 않은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니 헤아려주시고 이 편지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1866-02-29, 126)

6) 전경목, 위의 논문, 2018.

4) 家格 宣揚

김양연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주로 한 일은 과거 시험 준비이고 합격 이후에는 관직 생활이지만 중간중간에 꾸준히 했던 활동이 있으니 주변의 친지나 고위관직자 등에게 인사를 다니는 것이었다.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집안이나 가문의 위상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개인 혹은 가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설날이나 한가위와 같은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선물을 지참하고 갔으며, 주인도 방문객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예였다. 그런데 이 선물의 양이 결코 만만치 않았으며 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양반들의 경제생활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봄에는 여러 곳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을 또 결단코 말 수 없으니 미리 예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1864-10-21, 87)

몇 곳을 한 번 방문하는 것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고 또한 너무 박하게 할 수도 없는데 종이와 春布 외에는 달리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 여러 비용을 통틀어 보면 적어도 二苞 이하로 줄이지 않은 연후에야 분배하여 메울 수 있으니 이것을 장차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요?(1864-12-10, 98)

새해에 임하여 몇 곳을 대략 방문하였는데 비용이 수십 냥에 이르렀고 앞으로의 소용될 것도 장차 많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1865-02-21, 110)

여러 곳에는 모두 한 차례씩 가보았는데 靈峴에서 수용해주는 것이 얼굴을 잇는 데에 이르지는 않은 듯합니다.(1868-08-08, 210)

이러한 활동은 분명히 그의 정치적 처세와 관련이 있었다. 김양연이 인사차 다니던 인물들, 다시말해 인맥 리스트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인맥은 그의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엇그제 남릉 어른이 돌아가셔서 하나의 의지처를 잃게 되었으니, 매우 슬프고 한스럽습니다.(1868-09-08, 216)

벼슬에 관한 정황은 점차 묘연해짐을 깨닫습니다. 비록 臺啣이라도 또한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남릉까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밟고 오를 길이 갑자기 끊어져 매우 무료할 따름입니다.(1868-10-14, 221)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앞서 소개했던 안동 유생 김병황은 상경 후 빈번한 과거 시험 일정 가운데서도 틈틈이 짬을 내어 당시의 집권자나 고향 출신의 관직자 등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다. 예를 들면 1880년 3월에 남촌과 북촌, 齋洞 등에 인사를 닦으러 다니는 등, 시간이 날 때마다 집권자와 교류하고 이를 통해 家格을 높이거나 명문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⁷⁾

3. 서신 교환의 목적성

1) 물건의 수수

기윤진 부자는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 여러 가지 물건을 주고 받았다. 물론 이 표에 나오는 선물들은 부자가 주고 받은 간찰 속에서 등장한 물목들만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양과 종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그 대강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 3>

번호	장성에서 보낸 물품	서울에서 보낸 물품	일시	비고
1	겨울상하복, 허리띠, 버선, 도포와 단추, 첩초(帖草), 포, 여행용 요강, 황굴		1864/12/03	90
2		달력	1864/12/10	98
3	꽃감		1864/12/22	101
4	김, 어란		1865/03/06	113

7) 전경목, 위의 논문, 2018.

번호	장성에서 보낸 물품	서울에서 보낸 물품	일시	비고
5		북포(北布)	1865/12/24	121
6	창의(淸衣), 상하의, 버선, 행건(行巾)		1866/04/25	133
7		부채, 인두, 가위	1866/05/27	137
8		문정기, 장계	1866/08/05	151
9		강의절목	1866/08/05	154
10	비자열매, 도포		1866/12/23	171
11		녹미(祿米), 『초역(焦易)』	1867/11	194
12		청포, 갓끈	1866/01/20	199
13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버선		1866/09/19	218
14		띠[帶]	1869/12/04	264
15		『시가휘찬(詩家彙纂)』	1871/07/09	291
16	나귀, 백지		1871/07	294
17		중력(中曆), 청력(靑曆)	1871/11/03	311
18	농목(農木), 중목(中木)		1872/01/06	322
19		황촉	1873/05/08	348
20	담배		1873/07/25	374
21		인삼	1873/08/24	380
22		청력, 홍력, 중력	1873/10/28	397
23		상소(上疏), 분발(分撥), 각도 전취책, 정사(政事), 약쑥, 민어, 석어	1873/12/19	405
24		삼씨	1873/12/21	408
25		『통감』	미상	429

기윤진이 장성에서 보낸 물목은 주로 옷이나 옷감류, 종이였으며 서울에서 기양연이 보낸 물목은 문정기나 장계, 상소 등 정보와 관련한 것 이외에는 책이나 달력, 그외 약재와 생선 등의 것이었다. 아래의 표는 둘 사이에 실제로

보내고 받은 다음 ‘보냈다, 받았다’는 등의 언급이 있는 물목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한 항목들이다. 서울에 사는 기양연이 요청한 물품들은 역시 옷이나 이불, 종이, 종이, 장성에서 기운진은 부채, 달력, 약재 등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표 4>

번호	서울에서 요청한 물품	장성에서 요청한 물품	일시	비고
1	허리띠, 무명도포	새 달력, 장력	1864/09/04	82
2		향황련(香黃連), 사군자육, 알로에, 감초, 호추	1864/12/03	90
3	종이다발, 춘포(春布)		1864/12/05	95
4	지팡이		1864/12/10	98
5	종이다발, 춘포, 녹지		1865/01/09	104
6	거울옷, 이불		1865/08/14	118
7	청저포		1866/01/28	123
8	청저포, 버선		1866/02/29	126
9	겉옷, 목창의(木擘衣)		1866/08/05	148
10	복포(服袍), 비자열매, 책동(策東)		1866/12/21	168
11		구리항아리, 수저	1867/04	179
12	나귀의 편자		1869/08/22	253
13	별삽(別簏)		1871/05/29	285
14	노마(奴馬)		1871/06/15	288
15	목화		1871/07	294
16		『사요(史要)』	1871/07	323
17		인삼, 감초, 호추, 청화(靑華), 황모(黃毛), 청설모	1872/01/06	323
18		북빈마(北牝馬), 용안육(龍眼肉)	1873/07/01	365
19		麻索(마삭), 약재료	1873/07/21	369
20		선향(扇香)	1873/07/22	372
21	평상복, 이불		1873/09/21	389
22	무명도포, 면두루마기		1873/09/23	392
23		역서(曆書)	1873/10/10	394

주고 받은 물건, 요청 후에 주고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들 가운데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구할 수가 없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보내달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시세 차이로 인하여 그쪽에서 사서 부쳐줄 것을 요구하는 예가 많다.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백지는 반드시 전편이라야 보낼 수 있으니 짐 값이 적지 않는데 서울에서 사는 것이 이익이나 손해는 없을 것 같다. 잘 헤아려서 상세히 알려주어라.(1864-12-03, 91)

종이다발 등의 물건은 전편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으니 그 짐 값을 헤아려보고 이익이나 피해가 없으면 서울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춘포는 흑 향촌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니 일일이 잘 헤아려서 알려주어라.(1864-12-05, 95)

종이뭉치는 우봉 편에는 한 묶음도 부쳐오지 않았는데 그곳의 종이 값이 높지 않다면 비록 전편을 시키더라도 또한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값도 헐하지 않고 품질도 높지 않다면 서울에서 사서 쓰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1865-01-29, 107)

나귀는 팔고자 하는데 100냥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서울에서는 흑 고가에도 선택하는 형세가 있으니 팔아도 무방할 것 같다.(1871년 7월 추정, 295)

능아의 泥鞋는 만들지 못했는데 만약 값이 다르지 않다면 사오는 것이 좋겠다. 이곳은 장차 근 3냥이나 된다고 한다.(1873-07-25, 374)

내려올 때 만약 환전할 수 있다면 보교와 산 말을 가져와서 주면 좋을 것 같다. 비록 말은 이곳에서 나온 것과 경상도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암말은 서울이 가장 싸니, 말을 사가지고 오면 좋겠다. ... 인삼은 서울도 또한 값이 높으냐? 흑 주선할 길이 있으면 근근히 약용으로 쓸 것 한두 냥만 사오면 좋을 것이다.(1873-01-28, 413)

특히 종이는 기양연이 자주 요청한 물목으로 항상 가격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를 써서 보내면 상대방이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시골에서보다 서울에서 고가로 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부채는 긴히 쓸 곳이 있으니 신상품 좋은 것으로 한 20자루를 사서 의복을 보내는 편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품질의 부채를 구하기 또한 어려울 것 같으니 혹 사람을 장전리에 보내거나 혹 예동에 보내어서 물어보시는 것이 어떠한지요?(1873년 5월 추정, 353)

扇香은 값만 따져서 취하지 말고 오직 오랫동안 향기가 있는 것을 택해서 사 보내어라.(1873-07-22, 372)

부채나 선향은 양쪽 모두에게 없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부채같은 경우 기양연이 서울에서 인맥 관리 등에 소용이 많이 되므로 좋은 품질의 것으로 특별히 부탁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달력을 꼭 더 사서 부쳐드리려고 했으나 서울에서도 이 물건이 궁핍해져서 구해도 얻을 수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1869-12-04, 264) 기운진은 짠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좋은 향기가 오래가는 선향으로 사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기운진 부자가 이렇게 서로에게 물건을 요청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시세 차이가 커서 물건을 보다 싼 값에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조선시대 양반 중에는 이러한 지역간의 시세 차를 이용해서 이익을 꾀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청탁의 성사

조선시대에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왕이나 명문세족과 정보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그 정보망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권력 핵심부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다.⁸⁾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훨씬 쉬워지는 셈이 된다. 김양연은 1864년 증광시 초시에 합격하고 1867년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이렇다할 실질 직함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본인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유를 김양연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8) 전경목, 위의 책, 2001, 270쪽.

저는 실질 직함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대개 이번의 加資는 허다하게 권세 있는 가문이 절반이 넘는 데다 그간의 정사가 한 차례에 그쳐서 비례에 따라 몫을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1868-01-20, 202)

금번 가자의 대상에는 권세 있는 가문이 절반이 넘었으며 정사의 횡수 자체도 적어서 균등한 비례로 배분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며칠 뒤 기윤진은 “근래 또 띠고 있는 직함은 어떤 직함이나? 전전공공하며 스스로를 지켜서 우리 선대가 적선한 음덕에 부응해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1868-01-27, 203)”라고 하였다. 이후 아버지 기윤진은 기양연에게 시골로 내려올 것을 종용하였으며, 기양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제가 돌아가는 것은 과거 후에는 크게 정해질 것이나 혹 실질 직함 한 자리를 얻는다면 남아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망상하는 것이 번번이 틀어지니 어찌 그것을 받드시 얻게 되리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외직에 제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감히 바라지 못할 일이니 다만 마땅히 하늘만 믿을 따름입니다.(1869-08-22, 253)

혹시 실질 직함을 얻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다. 직함에 대한 그의 포부, 그리고 외직 제수에 대한 갈구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윤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귀향을 이야기한다.

네가 돌아오는 것은 때와 형세를 헤아려서 할 일이다. ... 다만 특별히 일의 끝이 관계된 것이 심히 구애됨이 없는데도 용단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없이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1871-07, 294)

돌아올 날은 어찌 요량하고 있느냐? 이번이면 이미 耨年이 되는데도 참된 일이 없으니 집에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남아서 앉아만 있다고 어떤 좋은 도리가 있겠느냐?...진실로 참된 기미가 없다면 내려와서 다시 도모하여 올라가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 돈을 빌리는 것은 감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니 고향에 내려오는 것 또한 어찌 서울에 있는 것만 못함을 알 수 있겠느냐?(1871-09-20, 304)
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아직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매우 염려가 된다. 지

난 번 편지에서 마련할 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묻지를 았았다. ... 너의 불민함과 노둔함이 이런 낭패를 부른 것이니 어찌할 것이냐?(1872-02-04, 328)

앞서 기윤진이 말한 것처럼 '선대가 적선한 음덕에 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좋은 관직을 받고, 그것을 위한 인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자의 소요가 자못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향에 내려올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한 것인데 이는 친구 간, 사제 간, 혹은 관직자 간 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고 받는 간찰들이기에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거쳐 그는 이후 1873년 4월 27일의 정사에서 司僕正의 恩點을 받게 된다. 그가 말하는 사복정의 자리는 淸宦職이자 부요한 자리이고 이는 곧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같아 영광스럽고 다행함이 지극한 일이었다.(1873-05-06) 또 좋은 관작이라고 칭해져서 사람마다 축하하지 않음이 없으니 형세상 시골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1873-05-08) 그는 자신이 사복정의 자리를 얻게 된 연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관직을 얻은 것은 그 단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崔遇亨 대감을 처음 시소에서 사권 인연이 자못 알지 않는데 출방 후에 이 대감이 雲峴에 특별히 공송하여서 이로 인해 이러한 시의의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문은 이와 같으나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1873년 5월 추정, 351)

저는 전에 받은 직함을 아직도 띠고 있으며 지금의 모양으로 지내고 곧 체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직을 오래 맡는 것은 근래에 격외의 일인 것입니다. 遐陬의 열에 놓여있지 않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1873-06-08, 354)

대개 당초에 제수된 것은 이미 남에게 보인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곧바로 체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1873-06-11, 357)

본인이 임명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최우형 대감과 인연이 맺어준 결과일 것이고, 관직을 비교적 오래 맡고 있는 것은 최우형이라는 무게감 있는 인맥을 통해 제수 받은 직이기에 곧바로 체직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에서의 관직 생활은 인적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자칫 소홀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본인의 입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 혹은 지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한 인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다음의 사례는 역시 인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정은 어제 이미 지나갔는데 아버님을 목릉참봉에 말망으로 의망했습니다. 모쳐로부터 실로 어디에서 캐물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처음에는 거의 수망으로 의망에 오를 것 같았는데 끝에 가서는 말망에 그쳤으니 한갓 운수 때문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곁에서 칭찬하며 천거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1866-12-21, 168)

기윤진이 목릉참봉에 말망으로 의망된 데 대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누군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서주었다면 수망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간찰에서는 크고 작은 인적 연망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과 그 연망을 통해 여러 가지일들을 주선하려고 노력하거나 해결해 내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쉬, 즉 자신들의 세거지인 장성의 수령에 대해서는 도임에서부터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쉬의 도임이 곧 있다고 하는데 혹 상면은 했느냐? 안 했다면 반드시 일에 따라 긴밀한 부탁을 하고 이야기한 뜻을 곧 부쳐줄 것이며, 관례에 따른 부탁으로 범범히 보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1873-02-24, 334)

본쉬 어른은 아직까지 성에 들어오지 않아 괴이합니다. 이 어른은 재상 중에는 한 사람의 친지도 없고 다만 지금의 이조판서가 남매가 되니 가장 긴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패찰은 도모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또한 그의 기세가 촉탁을 듣지 않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습니다.(1873-06-08, 354)

본쉬가 아니라도 인근의 열읍과 관찰사에까지도 주의를 흘트리지 않고 있는데 혹시 발생하는 친구관의 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기존의 수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켜오다가 체직이나 파면등의 이유로 새로운 관리가 부임하게 되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

아가기가 쉬웠다. 다음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예들이다.

또 그 집안 선달의 빚 문제로 관아에 소송해서 시원하게 탈을 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관과 구관이 서로 바뀌는 때를 당해서 혹 차질의 염려가 있다.(1871년 7월 추정, 294)

通内の 산지기의 역을 면제하는 일은 신관이 온 후에 또 역에 나가는 것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때문에 모름지기 급히 긴절한 공송을 얻어서 영광 官便과 과거 왕래 편에 부치고 공문서를 얻은 연후에 가을에 있는 역을 면할 것이니 모름지기 곧바로 특별히 도모해서 부쳐라.(1873-07-21, 369)

통내의 선산 아래 사람을 역에서 제하는 것은 신관이 온 후에 또 탈이 생겼으니 모름지기 聯臂를 도모하여 통기해주면 마땅히 곧바로 呈出하여 가을 역은 면하게 할 계획이니 범범히 하지 말라.(1873-07-22, 372)

수령의 교체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소송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기존의 수령에게서 받았던 역 면제가 신관의 부임 이후 원상복귀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 부임하게 되는 관리에 대해서 신속한 물밑접촉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근래에 들으니 영광수령이 서울에 들어와 이틀 있다가 곧 내려갔다고 하는데 곧바로 소식을 듣지 못해서 가서 긴밀한 부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한스럽습니다.(1864-10-21, 87)

영광쉬는 이미 거류가 결정되었느냐? 만약 새로 나온다면 선영묘의 일은 다시 주선할 곳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1869-08-22, 251)

① 관직·제반 청탁

이러한 인적 연망의 관리로 어느 정도의 관계가 구축이 되면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중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의 글을 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다.

무장취가 새로 왔으니, 禮洞의 일은 齋洞의 상사 조경호에게 긴절하게 부촉해 주도록 하면 반드시 괘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가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혹시 효과가 없다면 마땅히 다시 달리 부탁할 것을 도모할 계획입니다.(1871-05-29, 285)

보성취가 새로 나왔는데 세 곳에서 함께 긴탁을 하고자 하나 이 사람은 본래 제천 사람이라서 서울에서는 친하게 알고 있는 자가 드물어서 아직 좋은 계제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널리 탐문하여 부탁을 보낼 계획입니다.(1871-07-09, 291)

보성의 세 곳은 모두 본관에게 긴찰을 얻었는데 부칠만한 인편이 없어서 지난 달 3일에 편지와 아울러서 경저리의 집에 부치고서 속히 전해주도록 했습니다.(1871, 09, 09, 299)

고창의 조선비 일은 完營에 이미 부탁한 것이 이미 긴절해서 혹 유배가 면해질 것 같습니다.(1868-02-11, 207)

저번에 시소에 있을 때 작천의 심부름꾼이 왔는데 대개 그 장사지내는 일에 척이 있게 되어 긴밀히 보성취에게 부촉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통의 패찰을 얻어서 보내주었는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1873년 5월 추정, 351)

청송의 文生 일은 ... 역장은 도모할 가망이 있는 것 같지만 미리 가필할 수는 없으니 비록 連臂일지라도 새로운 도백에게 부탁하면 좋을 것 같다. 전해 듣자니 고창의 선비 이영삼과 새로운 관찰사가 친교가 있다고 한다. 그로 하여금 다리를 뉘주도록 부탁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1874-01-28, 414)

그러나 이러한 청탁을 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난관이 존재하였다. 우선 청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탁을 해오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두 가지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성사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무장현감에게 긴밀히 부탁한 것은 어찌 그리 많은 수를 부탁하였느냐? 번거로우면 혹 긴요하지 않음이 있게 된다. 단지 이선비와 松濬의 일로 부탁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금년은 승보시로 청하는 것이 허다하여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니 미리 먼저 재량을 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이하고 그리하여 작년에 속임을 당한 것을 씻어야 한다. 미리 긴찰을 도모해서 보내면 가서 상종을 하여서 주밀한 의론을 획득해야만 주저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1873-07-01, 365)

하지만 국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조정의 상황이 좋지 않아 청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설사 청탁을 넣는다고 해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가 부탁한 일은 영념해서 도모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근일 조정이 상황이 전과 크게 다르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이 미치더라도 모두가 짐짓 기다리라는 것으로 말을 하니 어떡합니까?(1873-12-19, 405)

그리고 부탁을 해야 하는 대상과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는 당파에 따라 이해 관계가 크게 달랐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생은 경영한 바가 한 가지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완백은 조성교 대감이 되었는데 타읍 사람이고 생면인 사람입니다. 문생이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은 幕裨 한 자리인데 도모하여 얻을 수 없었고, 총의위 한 자리는 장차 특별히 도모하려고 하나 이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자리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가장 많은 자리이니 실로 쉽지 않습니다.(1873-12-28, 411)

일이 감영의 제김에 달려있으니 營邸에서 주선하면 과연 계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밀한 壓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한갓 물건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 소비되는 날도 몇 날이나 될 것이니 반드시 더더져서 미치지 못하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1871-09-11, 301)

文齋는 그간에 혹 내왕이 있는지요? 그가 부탁한 오위장은 근래 허락을 얻었으나, 들어갈 돈이 장차 3苞零에 이르니 그의 힘을 헤아려보면 너무 지나친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액하면 끝내는 이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도모하였습니다.(1868-11-26, 231)

② 과거 청탁

기양연의 편지 가운데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과거의 소요’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아마 과거 설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들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근래에 과거의 소요로 인해서 며칠간 과거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1865-02-21, 110)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숙종대 이후 특히 영정조대로 오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차례 시험만을 통해 합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과거가 빈번히 실시된 것이 그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과거 열풍이 과도하게 불었고 이러한 경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시험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채점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채점과 석차 배정을 단 시간 내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도중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합격자 발표 후에는 공정성 시비가 곧잘 일어났다.⁹⁾

감시는 이미 지냈습니다만 한 도가 모두 쓸쓸한 데로 돌아가고 말아서 분합니다. 1소의 방을 아직 못 보았는데 사사로운 정이 자못 많다고 합니다.(시기미상, 434)

시관이 공정하게 심사하지 못해서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일도 많았다. 1880년 3월에는 시관들이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사심에 의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다반사였다. 그러한 여론에 의해 국왕이 분노하여 시관을 모두 유배시키고 한성부 초시 합격을 전부 취소한 후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명령하였다.¹⁰⁾ 그런데 다시 치른 이 시험에서도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시험장 내에서 청탁하는 편지가 발견되자 무뢰배들이 이를 빌미로 시소에 돌입해서 상시관에게 청탁자를 찾아내라고 욕박지르며 욕을 보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정부에서 다음날 소란을 피운 자들에게 적합한 처벌을 하였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시관 역시 파직하였다.¹¹⁾

9) 전경목, 위의 논문, 2018.

10) 전경목, 위의 논문, 2018.

11) 전경목, 위의 논문, 2018.

소과 회시는 마땅히 매우 공정하다고 합니다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과의 회시는 묘연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1865-03-12, 116)

회시일은 16일로 정한 것 같은데 매우 공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시기미상, 436)

엿그제 여러 시관에게 칙령이 전해오길 ‘총역 안위’ 등의 말로써 신신 엄교하였으니 科榜은 매우 공정할 것 같고, 집안 수도 마땅히 분배한다고 하는데 아직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1869-08-29, 256)

위의 사례들은 각각의 시험에 대한 공정성의 정보를 전달해준 것이다. 실제로 1885년 국왕은 시관들을 건청궁으로 불러 시험을 공정하게 실시해서 파방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¹²⁾

앞서 이야기한 과거의 열풍은 이러한 공정성 시비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서울에 많게는 수십만 명이 몰려들도록 하였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의 신원 확인 문제와 시험장 내에서의 부정행위 감시가 크나큰 골칫거리였다. 몇몇 시관이나 관리자만으로는 시험장 내에서의 다양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기가 거의 불가능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안동 유생 김병항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원고를 베껴 제출하거나 자신이 미리 써놓은 원고를 그대로 옮겨 제출하기도 했다. 시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들고 시험장으로 들어가 제출하고 나오도록 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김병항 뿐만 아니라 당시 응시자들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부득이하게 용인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¹³⁾ 그러한 당시 분위기 속에서 과거와 관련한 청탁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乃吉씨가 그 과거시험에 대한 일을 편지로 부탁한 것이 있어서 이미 한 통의 패찰을 요량해 놓았는데 아직 받아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음 편에 부치겠습니다.(1869-08-20, 248)

12) 『승정원일기』 고종22년 5월 12일.

13) 전경목, 위의 논문, 2018.

만약 경과가 있다면 능아가 제술시험을 보게 하고 싶다. ... 만약 시험을 본다면 公誦을 얻는 것이 혹 첩경이겠지?(1874-01-28, 413)

漢試에서 합격 소식이 없는 것은 편지에서 이미 말했으며 본도의 방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대개 들으니 한 가문이 좌우에서 모두 빠졌다고 한다. 분한 일이다. 동당도 또한 반드시 떨어졌을 것이다. 듣자하니 平倂가 갑자기 미친병을 얻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의 돕는 자를 잃은 것이니 어찌 뽐히기를 바라겠느냐?(1885-06-05, 452)

3) 혼처의 물색

지방에 세거하는 양반 가문들은 낙향한 후에도 얼마 동안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고 서울의 권문세가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러다가 몇 대가 지난 후에는 관리나 과거 급제자를 점차 배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결혼도 자연스럽게 서울의 권문세가와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결국 지방 양반으로서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집안과 대대로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좀 더 좋은 집안의 자제와 혼인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처를 물색하고 그 혼처가 괜찮은 자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¹⁴⁾

혼처는 특별히 물을 만한 곳이 없고, 또한 와서 구하는 자도 없다. ... 과거시험 때에는 도내 사람이 모두 모일 것이니 널리 묻도록 하여라. 근처에서는 이미 합당한 곳이 없다. 남원 등지에는 혹 좋은 곳이 없으려나. 도를 넘어서 멀리까지는 이르지 말라고 저번 편지에서 말했는데 묵묵히 헤아렸느냐? 이것은 하늘의 인연과 관계된 것이고, 또 널리 묻는 것과도 관계된 것이니 널리 묻는 것 또한 네가 돌아온 후에 있을 것 같다.(1868-01-27, 203)

咸陽과의 혼설은 이미 앞 편지에서 아뢰었으니 마땅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길 이 먼 폐단이 있는 것은 참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가까운 곳에서는 합당한 곳이 없으니 먼 곳에서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1869-11-10, 261)

14) 전경목, 위의 책, 2001, 278쪽.

혼처는 합당한 곳이 없으니 어찌할 것이냐?...혼처로는 한 군데도 물을 곳이 없고 沙平은 통할 길이 없는데 基洞의 김모가에서 통해준 말이 있다. 이것은 同鄉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부자로, 혼인약속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 과연 너는 어떠하겠느냐?(1871-07, 295)

혼처로는 김씨를 운운하는데 비록 매우 합당하지는 않을지라도 만약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또한 어찌할 것도 없으니 정해서 행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1871-09-09, 298)

혼처는 여기에서는 물을만한 곳이 없으니 基洞이 매우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1871-09-11, 301)

기윤진은 혼담이 오가는 집안도 없고 괜찮은 혼처를 물을 만한 곳이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양연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과거를 치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미리 혼처를 물을 것을 당부하면서 도의 경계는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양연이 '혼처는 여기에서는 물을만한 곳이 없'다고 한 것처럼 가까운 곳에서 합당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자 매우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양호한 편이면 혼인을 성사시키자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장성 행주기씨의 기윤진과 기양연 부자가 주고 받은 간찰을 통해 발신인과 수신인이 서울과 지방이라는 범주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주제와, 그 안에서도 특정한 목적 의식 하에 주고 받는 내용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편지 역시 기본적으로는 객지 생활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노쇠한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간찰 본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의 거주지가 서울과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로부터 시국에 관한 정보, 서울의 정세, 관리 임면 상황, 과거 시험 정보, 가격 선양 활동 상황 등을 듣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정보 전달'의 측면을 넘어 상호간에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서신을 주고 받는 상황에 주목하여 크게 물건의 수수, 청탁의 성사, 혼처의 물색이라는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는 물건의 수수이다. 주고 받은 물건 가운데 자신의 거주지에서 구할 수가 없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시세 차이를 이유로 더 싼 값에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탁의 성사로, 김양연은 가문이나 지인들의 청탁을 부탁 받는데 이 청탁이 간찰 작성의 목적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청탁에 대한 수응은 본인의 입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혼처의 물색이다. 이 역시 혼처의 물색이 서신 작성의 목적 그 자체이며, 김양연이 혼처를 물색해보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또한 그들의 家格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식을 띤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즉 물건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것, 청탁할 만한 대상이 주변에 적지 않은 것, 혼처를 물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발신인 혹은 수신인 중의 한쪽이 다른 곳도 아닌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여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사실 경향간이라는 거리감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편지 곳곳에서 나타나듯이 부자간의 애뜻하고 절절한 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3]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고문서의 현황과 가치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고문서의 현황과 가치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목 차>

1. 머리말
2. 금강종가의 내력과 고문서 전래
3. 금강종가 고문서의 현황과 종류
4. 금강종가 고문서의 성격과 가치
5. 맺음말 -활용방안을 겸하여

1. 머리말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의 자료¹⁾는 장성에서 세거한 금강 기효간(錦江 奇孝諫, 1530~1593)의 종손가에 전해지는 문적으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된 자료이다. 첫 기탁 사례이면서 2,749점이라는 매우 많은 수량의 자료라는 점에서 호남 지방의 고문서 등 역사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구 활용하기 위해 출범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으로서는 일종의 ‘경사’라 할 수 있다.

이들 문서류에 대해서는 기초 목록 조사를 실시하고 성격을 검토한 바 있다.²⁾ 그리고 주요 문서들은 고서류와 함께 전시를 하고 도록으로 발간되어 활

1)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관리규정 제2조에 “‘자료’라 함은 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멸실될 위기에 있다고 인정되는 고서, 고문서, 목판, 서화, 기타 유품 등 수장고에 수입되는 한국학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전남대 박물관, 『고문서』-전남대학교박물관 고문서 조사보고서 제5책-, 1999;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해제집』 6-장성 幸州奇氏, 정음 道康金氏, 합천 老栢書畵, 산청 道川書院-, 2012; 호남권

용이 되고 있다.³⁾ 또 기초 조사에 대한 해제와 고문서의 성격을 정리한 글⁴⁾과 간찰을 분석하여 과거 합격과정을 살피고 산송의 실태와 대응에 대한 연구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⁵⁾

본고에서는 금강종가의 내력을 살펴보고 기탁 문헌 가운데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래경위, 현황과 종류, 성격과 가치를 개략적으로 살피고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현황과 가치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금강종가의 내력과 고문서 전래

기효간(1530~1593)은 자가 백고(伯顧), 호는 금강(錦江)·인재(忍齋)로서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의 문인이며 당숙인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에게 수학하였다. 기효간은 당대의 대성리학자 두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 문장과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일재 이항(李恒)에게도 나아갔다. 일생 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후진양성에 주력하여 호남의 은덕군자(隱德君子)로 불리었다. 하서 김인후가 문인에게 지어준 “우주의 중간에 두 분이 있는데, 공자는 원기(元氣)이고, 주자는 참됨[眞]이다.”⁶⁾라는 시가 있는데, 기효간이 도를 전해 받은 시로 알려졌다.

동문인 건재 김천일(健齋 金千鎰, 1537~1593),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변이중(望庵 邊以中, 1546~1611) 등과 교류하였다. 문하에 도암 오희길(韜庵 吳希吉, 1556~1625)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스승 김인후가 세상을 떠난 뒤 사암 서태수(思巖 徐台壽, 1520~?), 망암 변이중, 호암 변성온(壺巖 卞成溫,

한국학자료센터, “행주기씨가 소장 고문서”

3) 조선대 박물관, 『학문의 씨를 뿌리고 문장의 베를 짜다: 장성 행주기씨가 소장 유물 특별전』, 2012.

4) 박재상, 「해제」, 『고문서』-전남대학교박물관 고문서 조사보고서 제5책-, 전남대 박물관, 1999, 3~9쪽; 김경숙, 「장성 행주기씨의 문서와 생활」, 『수집사료해제집』 6(1편: 장성 행주기씨 소장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12.

5)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산송 실태와 대응책 -장성 행주기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역사학 연구』 58, 호남사학회, 2015, 115~145쪽; 권수용, 「간찰을 통해 본 장성 유생 기양연의 과거 합격 과정」,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3, 145~168쪽.

6) 天地中間有二人 仲尼原氣紫陽眞[『하서전집』권7, 「示門人」]

1540~1614), 변성진(卞成振) 등과 사우(필암서원)를 짓는 일에 참여하였다.⁷⁾

장성 행주기씨의 입향⁸⁾과 금강종가 고문서의 전래 경위를 살펴보자. 행주기씨는 고려 인종 때에 문하평장사를 지낸 기순우(奇純祐)를 1세조로 한다. 10세기견(奇虔, ?~1460)이 판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어 다시 조선에서 꽃피우게 되었다. 12세 기찬(奇欽)이 기형(奇迥), 기원(奇遠, 1481~1522), 기괄(奇适), 기진(奇進, 1487~1555), 기준(奇遵, 1492~1521) 등 5형제를 두었다. 기준이 기묘사화에 사사되자, 둘째 기원은 장성으로 내려 왔으며 손자인 기효간이 참봉을 지낸 박수검(朴守檢)의 딸과 혼인하면서 장성군 황룡면 아곡[阿谷, 아치실]에 터를 잡았다. 기원의 동생 기진은 광주에 자리를 잡는데 기진의 아들이 기대승이다.⁹⁾ 행주기씨는 이후 기건의 후손이 사족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¹⁰⁾ 기형, 기괄, 기준의 후손들은 그 명맥이 유지되지 못하여 실제로 금강 종가가 행주기씨 대종가를 맡게 된 것이다.

기찬(奇欽)은 영광군수를 지낸 인연이 있어 그 아들들이 장성과 광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기찬은 1474년(성종 5) 식년시에서 을과 3위로 급제함으로서 조정에 진출하였다. 기찬은 홍문관 응교로서 시강관과 영광군수, 영안도 검찰관 등을 역임하였다. 기찬은 영광군수를 지내면서 강희맹의 둘째 아들 강학손(姜學孫, 1455~1513)과 교유한 것으로 보인다. 기찬이 1486년(성종 17)부터 1491년(성종 22)까지 영광군수를 지냈는데, 강학손이 1489년(성종 20)에 영광에 유배되었기 때문이다. 강학손과의 교유는 뒷날 넷째 아들 기진이 강학손의 손녀와 혼인한 계기가 되었고, 기찬의 두 아들 원과 진이 장성과 광주에 각각 내려와 터를 잡은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종가 고문서의 전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장성 입거 이후 언제, 누구부터의 고문서가 전래되고있는가이다. 두 번째는 전래 장소이다. 즉, 어디에서 어떻게 전래되었는가이다. 먼저 시기와 인물을 살펴보자. 교지나 시권 등을 통하여 보면 10세인 기건에서 26세인 기우승(奇宇

7) 필암서원 건립 등에 대해서는 김희태, 「필암서원의 역사」, 『서원 향사』-무성서원·필암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43~189쪽 참조.

8) 행주기씨의 장성 정착과 내력은 김경숙, 앞의 논문, 2012과 김봉곤, 「장성 행주기씨가문의 역사와 인물」(조선대 박물관, 앞의 책)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권수용, 박재상의 앞의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다.

9) 행주기씨 사족의 세거지로 기원의 후손 가운데 주로 기종상(奇宗相) 후손이 사는 장성 아치실과 기진의 후손이 사는 광주 너부실이 있어 “아치실기씨”와 “너부실기씨”로 일컫는다.

10) 금강종가 고문서에 있는 노사 기정진은 수고본인 『기씨가승』에서 정무공의 후손 일부만이 사족이고 해서(海西) 등에 떠도는 대부분의 일가들은 서인(庶人)으로 살아간다고 하였다.

承)까지 17대 사이에 13대에 걸쳐 15명의 고문서가 있다. 종가 소장 일괄 고문서로서의 특징을 바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과거와 관직류 문서는 지역에서의 사족 활동, 학문 교류, 중앙 정계의 활동과 관련된 기본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¹¹⁾

기왕의 조사에서 금강종가 고문서와 연파 기노백가 고문서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금강문중 고문서로 통합되었다. 육이오에 금강종가가 불탄 이후 남은 고문서와 전적 가운데 일부를 연파 기노백이 빌려갔고, 이후 반환하지 못한 채 기노백이 별세하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에 금강종가와 기노백가 모두 소장 고문서를 금강문중에 내놓으며 원래대로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것이다.

다음은 장소이다. 금강종가는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¹²⁾ 483번지(도로명주소: 청백로 76) 일원이다.¹³⁾ 기효간은 이곳에 인재(忍齋)를 지어 강학소로 사용했으며 이후 후손들이 계속해서 강학소로 이용하였다. 기효간의 손자 기처겸(奇處謙)과 증손자 진사 기진탁(奇震鐸) 때에 강학소로 이용된 것은 기처겸의 벗 추담 김우급(金友級, 1574~1643)의 글¹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진탁과 송암

11) 한편, 금강종가에는 장성 입향 이전 선대인물의 고문서도 있다. 1448년(세종 30) 7월 25일에 기건(奇虔)을 가선대부 전라도도관찰출척사 겸 감창 안집 전수 권농 관학사 제조 형옥 병마공사 겸 전주부윤(嘉善大夫 全羅道都觀察黜陟使 兼監倉安集 轉輸 勸農 管學事 提調 刑獄 兵馬公事 兼全州府尹)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가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 왕지(王旨)에서 교지(教旨)로 변한 이후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한다. 또 1478년(성종9) 5월 11일에 국왕의 명령을 받아 동년 6월 10일에 기찬(奇禡)을 선무랑 수 이조좌랑(宣務郎 守 吏曹佐郎)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교첩도 있으며, 기원이 기묘사화로 내려오기 이전 서울에 살 때의 1508년 기원(奇遠) 차첩(差帖)과 1515년 기원(奇遠) 고신(告身)도 있다.

12) 1914년에 장성군 서이면의 阿谷里 巨山里 石橋里 鵬沙里 河南里 孤寺里 각 일부가 합해져 아곡리(阿谷里)가 되었다(윤여정 편, 『대한민국행정지명』1-전남·광주편-, 향지사, 2009).

13) 원래의 금강종가 자리에는 문중 제실이 들어섰다. 종가는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231번지(상무대 지구 편입)를 거쳐 지금은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765-77번지(남매길 23)이다.

14) 김우급이 <신보에게 줌(寄慎甫)>이란 시에서,

아치실 이름 비록 구석지단 뜻이지만
은거할 곳으로는 땅이 실로 널찍하네.
뽕밭과 삼밭이 십 리 안에 펼쳤으니
밭 갈고 낚시질로 일신이 한가하지.
다리 가 우물에선 따뜻한 물이 솟고
집 뒷산에는 꽃이 활짝 피어나누나.
백년은 그럭저럭 자적할 수 있거늘
조정의 반열에 달려갈 필요 있으리?

小谷名雖僻,
幽居地實寬。
桑麻十里內,
耕釣一身閒。
水煖橋邊井,
花明屋後山。
百年聊自適,
何必走鸚班。

『추담집(秋潭集)』卷6

라고 하였고, <기신보와 아치실 유생들에게 부침(寄慎甫及小谷諸生)>

기정익(奇挺翼)도 이곳에서 강학에 전념하였다.¹⁵⁾ 이후 금강종가는 하남정사, 망정과, 백석헌 등의 당호를 사용했다. 기태온(奇泰溫)은 아우 기태검(奇泰儉)과 나란히 살면서 당호를 망정와(望程窩)라고 하였는데, 중국 하남에 살던 이정(二程), 즉 정이(程頤), 정호(程顥) 형제처럼 되자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강학소로 쓰이던 금강종가는 정이 정호 형제가 살던 중국 하남에 비겨 하남정사(河南精舍)로 불리게 되었고 마을 이름도 하남이 되었다. 백석헌(栢石軒)은 기양연이 거처하던 종가 사랑채에 붙인 당호로 사랑채 섬돌과 그 위에 자라는 동백나무의 지절(志節)을 따른다는 의미의 당호이다.¹⁶⁾ 이처럼 대를 이어 학문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들 지명은 고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기효간은 장성 서이면 소곡리(아치실)에 터를 잡는데, 1744년(영종 20)의 기

새집 그려저력 은거하기 좋은 곳에 잡았으니	新居聊卜好林泉,
방안 그득그득 책이 있고 기거하기 편리하오.	一室圖書坐臥便。
다만 한이 되는 건 친구 집 더욱 멀어졌으니	只恨故人家更遠,
오거니 가거니 뉘와 늘그막에 이야기 나누리.	逢迎誰與話殘年?

『추담집(秋潭集)』 권5]

라고 하여 아치실에서 강학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보는 기처겸의 자이다.

- 15) 고창 성송의 실학자로 일컫는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은 아치실 금강종가를 두 차례 방문하여 그의 일기 『이재난고(頤齋亂藁)』에 글을 남겼는데, 경진년(1760, 영조36) 2월 5일 아치실을 방문하였을 때 지은 <아곡(鵝谷)>이라는 시에서
-소곡(小谷), 아차실이라고도 하고 제곡(弟谷)이라고도 하며 어떤 이는 아찬곡(阿餐谷)이라 부른다.-
鵝谷【亦曰‘小谷’, 아차실’, 亦曰‘弟谷’, 或云‘阿餐谷’。】

조상님들 거치셨던 이곳 아치실은	吾祖經行地,
깊은 산속 골짜기로 마을 아늑하네.	山深里巷幽。
기수의 대나무엔 옛 그리움 남았고	淇竿留舊戀,
마당의 눈에는 유학한 자국 쓰였네.	庭雪記曾游。
쓸쓸히 잔약한 손자가 여기 있나니	寥落孱孫在,
멀고도 아득하니 너무도 오랜 세월.	蒼茫小劫悠。
해는 뉘엿뉘엿 말을 몰아 떠나면서	斜陽駟馬去,
가는 걸음걸음 자꾸자꾸 돌아본다.	臨路更回頭。

-첨정부군(僉正府君)께서는 이씨(李氏) 집에 장가들었고, 취은부군(醉隱府君)과 구암부군(龜巖府君)께서는 기씨(奇氏) 집에서 배우셨으니 3세의 유적이 모두 이곳에 있다.-

【僉正府君娶于李氏, 醉隱府君、龜巖府君學于奇氏, 三世遺跡, 並在此。】

라고 하였는데, 그의 종조부 취은(醉隱) 황세기(黃世基)가 아치실에서 진사 기진탁(奇震鐸)에게 배웠으며, 그의 종조부 구암(龜巖) 황재중(黃載重)은 아치실에서 기진탁의 아들인 송암(松巖) 기정익(奇挺翼)에게 배웠으며 기정익의 추천으로 우암 문화와 교류할 수 있었다. 황윤석이 서울의 노론계 인사와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 16) 기효철 제보(장성군 황룡면 진원면 남매길23, 2018.11.3). 이밖에도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종상 호구단자를 보면 거주지가 서이면(西二面) 소곡리(小谷里)로 기재되어 있다. 이 소곡리는 아치실을 이른다. 이후 기태온 준호구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1798년의 기태온 준호구에서는 장성부 서이면 하남리로 바뀌었다. 1816년 기재호 준호구 이후로 다시 장성부 서이면 내동리(內洞里)로 기재된다. 이후 문서상 마지막 호구자료라 할 1870년 기운진 준호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는 내동리로 계속 나온다.¹⁷⁾ 소곡리와 하남은 조선후기 면리동 명칭을 기록한 관찬 지지인 『호구총수』에서도 확인된다.¹⁸⁾

<표1> 행주기씨 금강종가 세계와 소장 고문서 관련 현황

세	인물	생몰년	내용	고문서	비고
10세	건(虔)	?~1460	호 청파(靑坡), 자 현암(眩庵), 시호 정무(貞武), 판중추부사 청백리(淸白吏)	○	
11세	축(軸)	1417~1464			
13세	찬(欽)	1444~1492	문과 영광군수 흥문관응교 시호 정렬(貞烈)	○	
13세	②원(遠)	1481~1522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14세	②대유(大有)		進勇校尉 龍驤衛 副司果 증 純忠補作功臣 資憲大夫戶曹判書 兼자.	○	
15세	①효간(孝諫)	1530~1593	호 금강(錦江), 용양위 부사과 선무원종훈 3등, 증 통정대부 호조참의	○	장성입향 금강종가
	③효근(孝謹)	1542~1597	1579년 무과, 남도순무어사, 선무공신, 증 이조참판, 개백군(皆伯君)		
16세	계헌(啓獻)		용양위 부사과, 선무원종훈, 증 호조좌랑	○	
17세	②처겸(處謙)			○	
18세	진탁(震鐸)	1607~1653	진사,	○	
19세	①정하(挺夏)	1623~			
	②정익(挺翼)	1627~1690	호 송암(松巖) *6자 식(濕)의 2자 종상(宗相)이 정하(挺夏)의 아들 형(涇)의 아들로 출계(出)	○	
20세	형(涇)				

17) 김경숙, 앞의 논문, 2015, 117~118쪽.

18) 『호구총수』(1789)(奎 1602) 장성 西二面(21) : 麥洞, 下登山, 冠井, 院堂, 梅谷, 冠井, 沙器店, 龍巖里, 龍積, 生鐵店, 小崑里, 牛羅, 牛羅沙器, 盆梅洞, 上通, 下通, 金洞, 草枝谷, 北門, 小谷里, 河南

세	인물	생몰년	내용	고문서	비고
21세	종상(宗相) (系)	1718~1776	자 원좌(元佐) 호 용암처사(龍巖處士) 증 조봉대부 동몽교관, 以曾孫正鎮 贈司僕寺正, 배全州李 焯女	○	
22세	①태온(泰溫)	1738~1815	1786년 생원, 배蔚山金廈賢女	○	
	②태량(泰良)	1744~1722	以孫正鎮 贈吏曹參議, 배南原尹弘 履女		
	④태검(泰儉)	1759~1824	생원, 배漢陽趙溥女		
23세	재의(在懿)	1773~1843	22세 ①태온(泰溫) 자, 이승(而習) 이 명 지학(志學), 재효(在孝), 배扶寧金 圭成女	○	
24세	①윤진(允鎭)	1798~1874	1831년 생원, 자 치중(致中), 1831 진사시 입격, 배潘南 朴宗漢女 子陽衍侍從恩 超授通政階僉知中樞府 事兼五衛將	○	
	②익진(益鎭)	1801~1856	1831년 생원, 배晉州姜源女	○	
25세	양연(陽衍)	1827~1896	초명 행연(行衍), 자 자민(子敏), 호 백석헌(栢石軒) 1867년(정묘) 문과, 백석헌문집 통훈대부 행흥문관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 배長興高 龜鎭女	○	
27세	①우승(宇承)	1858~1907	자 효술(孝述) 호 보산(普山) 통덕랑 보산유고	○	
	②우춘(宇春)	1861~1947	자 인술(仁述)	○	
26세	운도(雲度)	1882~1949	자 공룡(公龍) 호 소식(小石)		
28세	노만(老萬)	1912~1963	자 위경(魏卿) 호 제산(霽山)		
29세	준서(駿舒)	1933~	자 서경(瑞卿)		
23세	재우(在祐)	1769~1815	22세 ②태량(泰良) 자, 이명 지일(志 一), 배安東權德彦女 以子正鎭 贈吏曹參判	○	
24세	정진(正鎭)	1798~1879	호 노사(蘆沙) 생원, 참판,蔚山金宜 休女, 노사집 시호 문간(文簡)	○	
25세	만연(晩衍)	1819~1876	배延安李蕃成女		
26세	③우만(宇萬)	1846~1916	생원, 호 송사(松沙) 송사집 丙申 倡	○	

세	인물	생몰년	내용	고문서	비고
			義 건국공로훈장		
23세	재선(在善)	1792~1837	생원, 22세 ④태검(泰儉) 자, 호 입재(立齋) 입재집 배 商山金漢基女		
24세	봉진(鳳鎭)	1809~1886	생원, 배 長興高永鎭女		
25세	①진연(晉衍)	1826~1885	생원,		
	④삼연(參衍)	1851~1908	호 성재(省齋) 호남창의영수, 건국공로훈장	○	
26세	②재(宰)	1854~1921			
27세	경(慶)	1878~1926	초명 산도(山度) 건국공로훈장	○	

3. 금강총가 고문서의 현황과 종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된 자료는 모두 2,749점이다. 고문서 2,048점, 고서 701점이다. 분야별로 나누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조사된 사례를 살펴보고 기탁문서의 현황과 종류를 살펴보겠다.

<표 2> 장성 행주기씨 금강총가 자료 기탁 현황

고문서									고서	총계
교지류	호적	명문류	소지류	간찰	간찰첩	기타	제문만장	시문		
126	36	109	52	1,161	7	224	33	300	701	2,749

* 자료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표 3> 장성 행주기씨 금강총가 자료 기탁 목록(양식) - 교지류

소장처	순서	문서명	발급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사진번호	주기	비고	연호
금강총가	1	백패교지	1624	국왕	기진탁			93	34	8368	관인 1	별도 보관	천계 4년 10월

1) 기존 조사의 현황과 내용

(1) 전남대학교박물관¹⁹⁾

전남대학교박물관 조사자료 통계수치는 920건이다. 과거·관직 137건, 명령·보고 8건, 청원·소송 70건, 재산 관련 110건, 향촌·문중 3건, 호적류 35건, 기타 557건(간찰 477건 등)이다. 242건 원문을 영인 발간하였다.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²⁰⁾

국사편찬위원회 조사자료는 전남 장성군 행주기씨 소장자료 “자료군 DGJ035”, “자료철 227건”이다. 생산기간은 1605~1882년, 소장자(처)는 전남 장성 기준서이다. 사진자료에 ‘97-지원-903’의 일련번호가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흑백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호적 관련 문서는 장성부에서 발급한 준호구 33건, 호적단자 2건 등 총 35건, 과거·임용 관련 문서는 시권 29건, 백패 3건, 흥패 1건, 교지 37건, 교첩 1건, 차첩 2건 등 73건, 재산상속 관련 문서는 화회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등 9건, 매매·계약 관련 문서는 토지문기 76건, 노비문기 2건, 기타 문기 4건, 수기 4건, 수표 2건 등 88건, 증빙·공증 관련 문서는 계후입안(繼後立案) 1건과 사급입안 3건, 기록류 및 기타 문서는 관부문서 9건, 치부류(置簿類) 4건, 기타 기록류 5건 등이다.

(3) 호남권 한국학센터²¹⁾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으로 호남권 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형을 교령류, 소차계장류, 첩관통보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서간통고류, 시문류, 외교문서류, 고문서-기타, 고서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 행주기씨 관련 자료는 조선대학교에서 조사 했는데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서울 행주기씨 연파후손가자료 등 모두 1,127건에 이른다.²²⁾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탁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된 자료는 2,749점이다. 고문서 2,048점, 고서

19) 전남대 박물관, 앞의 책.

20)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 2018.10.31.).

21)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 2018.10.31.).

22)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에는 장성 고산서원 518건이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다.

701점이다. 고문서는 교지류 126점, 호적류 36점, 명문류 109점, 소지류 52점, 간찰 1,161점, 간찰첩 7점, 기타 고문서 224점, 제문·만장 33점, 시문 300점 따위이다.

(1) 교지류

교지류는 과거·임용 문서로 시권, 백패, 흥패, 교지, 교첩, 차첩 등이다. 교지와 시권이 많다.²³⁾ 시권은 1624년(인조 2) 기진탁 대부터 시작하여 기정하, 기태온, 기재의, 기윤진, 기양연을 거쳐 1883년(고종 20) 기우승에 이르기까지 기형과 기종상을 제외한 7대에 걸쳐있다.²⁴⁾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윤진의 시권 2건, 기한영, 기주진, 기우춘, 기동연 등의 시권이 각각 1건 등이다. 명지(名紙) 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백패는 기진탁이 1624년(인조 2)에 진사시에 3등 33인으로 합격한 문서, 기태온이 1786년(정조 10)에 생원시에 2등 10인으로 합격한 문서, 기윤진이 1831년(순조 31)에 생원시에 3등 40인으로 합격한 문서가 있다. 흥패는 기양연이 1867년(고종 4)에 문과 을과 제2인으로 급제한 문서이다. 이들 문서에는 당시의 시권들이 함께 있다.

교지, 교첩, 차첩으로 1448년(세종 30) 7월 25일에 기건(奇虔)을 가선대부 전라도도관찰출척사 겸 감창 안집 전수 권농 관학사 제조 형옥 병마공사 겸 전주 부윤(嘉善大夫 全羅道都觀察黜陟使 兼監倉安集 轉輸 勸農 管學事 提調 刑獄 兵馬公事 兼全州府尹)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가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 왕지(王旨)에서 교지(教旨)로 변한 이후 가장 빠른 것이다. 또 1478년(성종 9) 5월 11일에 국왕의 명령을 받아 동년 6월 10일에 기찬(奇禫)을 선무랑수 이조좌랑(宣務郎 守 吏曹佐郎)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교첩도 있다. 기원(奇遠)이 기묘사화로 내려오기 이전 서울에 살 때인 1508년(중종 3) 2월 17일에 병조에서 충무위 사변전부 충순위(忠武衛四番前部忠順衛)를 담당시킨 차첩(差帖)과 1514년(중종9) 8월 21일에 국왕의 명을 받아 1515년(중종 10) 4월에 기원(奇遠)을 수의부위(修義副尉)에 임명하는 고신(告身)도 있다.

23) 김경숙, 앞의 논문, 2012을 인용 발췌하면서 박재상, 앞의 논문과 호남권한국한센터 자료를 참고하였다. 수량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종류별로 내용을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한다.

24) 『보성 죽산안씨 고문서』에도 금강종가 시권 일부가 있다. 이는 아마도 두 집안이 혼인이 잦아 교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7세기 초반 문서는 기대유와 그 처 오씨 - 기효간 - 기계현에 이르는 3대의 고신이 남아 있다. 기대유 부처(夫妻)는 1605년에 아들 기효근이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봉해지면서 부모를 자헌대부 호조판서와 정부인으로 추증한 교지이며, 기효간은 사후 1605년에 선무원종공신으로 통정대부 호조참의 추증되었으며, 기계현은 1606년에 선무원종공신 3등으로 추증된 문서이다.

19세기에는 기종상 부처와 기윤진 - 기양연 부자 대의 고신이 중심을 이룬다. 기종상 부처의 고신은 1824년(순조 24) 효행으로 동몽교관 조봉대부와 공인(恭人)에 각각 추증한 문서, 그리고 1866년(고종 3)에 증손인 기정진이 종2품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에 임명되면서 증조부모인 기종상 부처를 통훈대부 사복시정과 숙인으로 추증하는 문서이다. 기윤진 - 기양연 부자 대의 고신은 모두 30여건 인데, 기윤진은 나이 70세 때 통정대부에 가자(加資)되었으며, 아들 기양연은 1867년(고종 4) 문과에 급제한 뒤부터 1882년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될 때까지의 차첩과 교지이다.

(2) 호적류

호적류는 장성부에서 발급한 준호구와 호적단자 등이다. 1765년(영조 41)부터 1858년(철종 9)까지 기종상(1718~1776) - 기태온(1738~1815) - 기재의(1773~1843) - 기윤진(1798~1874) 등 4대의 호구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가장 앞서는 문서는 1765년 기종상이 장성부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당시 기종상은 48세로 장성 서이면(西二面) 소곡리(小谷里)에 거주한다. 51세, 54세 때의 준호구도 있다.

기종상의 장자 기태온의 준호구는 40세(1777년)부터 51세(1789년)까지 5건, 58세(1795년)부터 61세(1798년)까지 2건, 67세(1804년)부터 76세(1813년)까지 6건 등이다. 그리고 기태온의 동생인 기태량(1744~1772)의 아들 기재우(1769~1818)의 준호구 2건이 있다. 27세(1795년)와 36세(1804년) 때의 것인데, 1795년에는 기재우의 이름이 기지일(奇志一), 1804년에는 기재우(奇在祐)로 개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태온과 기재우는 숙질간인데 기태온의 후손가에 기재우의 준호구가 남아있게 된 배경은 그가 4살 때 부친 기태량이 세상을 떠난 후로 백부인 기태온의 집에서 성장한 때문이다.²⁵⁾

25) 기탁 고문서 가운데 『가장(家藏)』에 기재우가 쓴 백부댁에서 성장하는 과정의 장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노사종가에 소장된 기재우의 일기인 『기척질문후』에도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기재의의 준호구는 부친 기태온이 별세한 뒤 호주를 계승한 44세(1816년)부터 71세(1843년)로 별세한 해까지 11건이 있다. 1816년과 1819년 준호구에서는 이름이 기재효(奇在孝)로 기록되다가 1822년부터 기재의(奇在懿)로 기록된다. 그 이전에도 지학(志學)에서 재효(在孝)로 개명한 적이 있어 지학(志學)→재효(在孝)→재의(在懿)로 개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운진은 1843년 부친 기재의가 별세한 뒤 호주를 승계하여 1846년(49세)부터 1858년(61세)까지 4건의 준호구가 있다. 아들 기행연(奇行衍)과 동생 기익진(奇益鎭)과 조카 기명연(命衍), 기창연(昌衍), 기종연(鐘衍) 등을 출거하였고, 소유 노비는 9~11구 사이였으나 도망노비가 많았다. 아들 기행연은 1858년 준호구에서 양연(陽衍)으로 개명하였고 조카 명연, 창연, 종연은 1852년 준호구에서 긍연(肯衍), 경연(敬衍), 영연(榮衍)으로 개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명문류

명문류는 매매·계약 관련 문서로 토지문기, 노비문기, 기타 문기, 수기, 수표 등이다. 가장 앞선 문서는 노비 매매 문기로 1621년(광해군 13)에 기처겸이 성을 알 수 없는 행(珩)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내종 2구와 여종 1구를 저화 1만 2천장 값으로 목(木) 70필을 주고 매득한 문서이다. 그리고 1770년(영조 46)에 기태온이 박진휴(朴振休)에게서 사내종 1구를 전문 5량(兩)에 매득한 문서이다.

토지문기는 17세기 전반 이래 전시기에 걸쳐있는데, 특히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가 70건이 넘는데 매득인이 기씨가 인물로 확인되는 경우는 30여건 정도이다. 나머지는 토지를 매득할 때 본문기 또는 구문기로 첨부되어 온 문서일 것이다. 기씨가 인물이 매득한 문서 중에 17세기에는 기진탁이 1638년(인조 16)에 박호인에게서 논 4두락 16복 2속을 말 1필과 목(木) 33필에 매득한 문기와 1642년(인조 20)에 기신현의 처 조이[召史]에게서 논 7두락을 목면 50필에 매득한 문기가 포함되어 있다. 18세기에 오면 기종상 대에 비교적 활발하게 전답을 매득하는 양상을 보인다. 1728년(영조 4)에는 이성 5촌 숙부 이연방에게서 전답 3두락을 매득하였고, 1742년(영조 18)에는 종인인 기은상 집안에서 산을 매득하였다. 이처럼 기씨는 17세기 이래 수 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토지 등을 매득하며 가산을 축적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있다. 이 『가장』에는 지금은 사라진 하남정사와 망정와의 기문이 필사되어 있다.

(4) 소지류

소지류는 1775년 기동상(奇東相) 등의 소지에서 1894년 기우면(奇宇冕) 등 소지까지 52점이다. 1775년 소지는 1775년(영조 51) 4월에 기동상(奇東相)과 기종상(奇宗相) 등이 선산의 소나무를 몰래 매매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장성부사에게 청원한 문서이다. 장성부사는 문중회의에서 엄히 처벌하고 자른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어서 관에 보고라고 판결하였다. 1823년 소지는 1823년(순조 23) 3월에 기재효, 기재규, 기재선, 기우진, 기상진, 기달진이 선산에 투장한 공의성(孔宜性)에게 이장하라는 제음을 내려달라고 장성부사에게 청원한 문서이다. 1894년 소지는 1894년(고종 31) 12월에 전라도 서이면 유생 기우면(奇宇冕), 박의용(朴義容) 등이 동학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장성부사 겸 소모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단인 동학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분류하여 이름을 쓰고 성첩(成帖)하여 올리니 구분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장성부사는 여러 선비들의 충분의격은 매우 흠탄하나 소요된 민심을 안정시킬 방도가 없어서 이와같이 한 것이니, 마땅히 보고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장성 행주기씨가 사는 세거지 인근의 제청산(祭廳山), 마항산(馬項洞), 하남치(河南峙)와 순창 소란동(巢卵洞) 등 네 곳의 분산(墳山)을 주축으로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짧게는 십 수 년을 수호하였다. 그 과정에서 18세기 후반 이후 4 분산에서 총 11건에 달하는 산송에 휘말렸다. 특히 18세기 후반 기태온 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제청산, 마항동, 하남치 등 세 분산에서 모두 6건에 달하였고, 소란동 분산에서는 19세기에 3차례나 투장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대한 그 실태와 대응책에서는 선행 연구가 있다.²⁶⁾

(5) 간찰, 간찰첩

간찰은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이다.²⁷⁾ 특히 아버지 기윤진(奇允鎭)과 아들 기양연(奇陽衍)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많다. 1862년부터 187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기윤진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24통과 기양연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103통 따위이다.²⁸⁾ 그리고 기양연이 친척이나 벗 등 주변사람에게 보

26) 김경숙,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산송 실태와 대응책」, 앞 논문

27) 노사 기정진의 종가에 전해지는 3천 건이 넘는 고문서 가운데 간찰이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기정진의 손자인 송사 기우만에게 온 간찰은 4백 건이고, 그와 관련된 간찰도 6백 건에 이른다(권수용, 「기우만의 수신간찰과 교유의 성격」, 『영남학』 2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3, 319~355쪽).

낸 편지 40여 통과 기양연이 받은 것으로 확실히 되는 편지 80여 통이 있다. 한글편지도 16통이 보인다. 간찰은 19세기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근현대기의 간찰도 많다. 간찰첩은 기정진, 기우만 등 종인들은 물론 정경세, 송시열, 홍석주, 남공철, 김조순, 김수항, 이재 등의 간찰도 보인다.

(6) 기탁 고문서

재산상속 관련 문서로 화회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등이 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이르는 기처검 - 기진탁 대와 기종상 - 기태온 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장 이른 분재기는 1624년(인조 2) 기처검이 사마시에 입격한 아들 기진탁에게 비 2구와 논 10두락을 별급한 문서이다. 기처검은 1682년에는 기진탁의 처 나씨에게도 승중가부(承重家婦)로서 용모가 단정함을 이유로 비 2구, 노 1구, 논 15두락, 쭉田 3두락 등을 별급하였다.

1694년의 화회문기는 조부모 사후에 조부모의 유의(遺意)에 따라 숙질간에 노비와 전답을 분재한 문서이다. 한 건은 봉사조로 대전(垞田) 15두락, 논 19두락, 밭 7두락, 노비 13구를 설정하고 각각의 몫을 기록하였다. 다른 한 건은 봉사조 및 별급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화회하는 문서인데, 이에 따르면 기연(奇淵)은 노비 7구, 전답 7두락을 분급받고 있다.

기종상 - 기태온 대의 분재기는 1776년(영조 52) 기종상이 기태온에게 전답 64두락과 노비를 별급한 문서와 1814년(순조 14)에 기종상이 며느리 김씨에게 종부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종사를 무리없이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논 6두락을 별급한 문서이다.

증빙·공증 관련 문서에는 계후입안과 사급입안이다. 계후입안은 1722년(경종 2) 기종상의 입후를 예조에서 승인하는 문서이다. 청원자는 기엽(奇灑)였는데 장형 기형(奇澗)이 6대 승증자로서 자손이 없어 부득이 양적입적을 하니 승인할 것을 청하였고, 예조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사급 입안은 1751년(영조 27)에 배정우(裴正佑)가 유학 황준(黃儁)에게서 비 자근개(者斤介)와 후진(厚眞), 후상(厚上) 등을 전문 13량에 매득한 뒤 장성군에서 공증절차를 거친 사급문서이다. 문서의 건수는 3건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도인 황준의 초사, 증인 초사, 장성군 입안 등으로 구성된 한 건의 일괄 문서이다.

28) 간찰이 많이 소장된 것은 기양연이 집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편지 왕래를 자주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그 편지를 잘 보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간찰에 대해서는 권수용, 앞의 논문, 2013 참조.

기록류 등의 문서로 관부문서(官府文書), 치부류(置簿類) 등이다. 관부문서는 녹표(祿標), 고목(告目), 사급첩(賜給帖) 1건, 상하(上下) 1건 등의 명령·보고 관련 문서들이 중심을 이루는데 대부분 기양연이 관직생활 중에 발급받은 문서들이다. 치부류는 노비안, 전답안, 추수기 등이다. 기타 기록류는 도목정사(都目政事)나 경연 내용을 초록한 문서로 기양연이 관직생활 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7) 제문·만장, 시문, 글씨, 고서

제문·만장은 33점, 시문은 300점이다. 제문이나 만장은 향촌 사회의 교류관계와 인적 연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록유물이다. 시문도 강학과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통계 처리되지 않은 글씨(탁본, 주련 등)도 있다. 그리고 고서는 고문서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눈여겨 볼 대상도 있다. 예를 들어 성책류 고문서 성격의 유일본인 경우는 사료적 가치도 부여 할 수 있다. 참제록(參祭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연망을 살펴볼 수 있어서이다. 그리고 필사 초고본 문집류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송암 기정익의 필사 원본에는 그의 벗인 명재 윤증, 우헌 박상현과 함께 장성 북이면 송암에서 사단칠정 논쟁을 벌인 내용인데, 이는 기정익의 송암집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양연의 문집인 『백석헌유집』은 그의 아들 기우승에 의해 편집중에 중단되었는데, 그 초고본이 남아 있다. 그런데 발간된 『백석헌유집』은 초고본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수록하였다. 예컨대, 사위인 허극에게 보낸 편지만도 초고본에는 수십 통이 수록되어 있다. 원본은 없지만 간행되지 않은 채 내용만 전하는 간찰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정진의 학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입재(立齋) 기재선인데, 그의 문집인 『입재집』도 발간이 되지 못하였는데, 그 필사본인 원본이 기탁문서에 있다. 또한 『노사집』의 경우 초간본이 발간된 이후 일부 내용이 울곡과 우암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사문난적으로 몰릴 뻔한 과정을 겪으며 이를 모두 수거하여 소각하고 다시 발간한 것이 오늘날 전하는 『노사집』이다. 그런데 금강문중 기탁자료에는 초간 완질본이 전하고 있어 이후 간행되는 『노사집』과의 대교 등 정본화사업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서울 낙산시사(洛山詩社)에 참여한 명사들의 시문을 모은 필사본 『사굴(槎橋)』은 수록된 시문들이 문집에도 나타나지 않아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금강종가 고문서의 성격과 가치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의 고문서는 고서를 포함하여 2천 7백여 점에 이르는 전라도 장성부 서이면 소곡리, 하남리(현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에 세거해 온 금강 기효간 종가 소장 자료이다. 다양한 종류와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에 입향 정착한 사족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장성 행주기씨가는 기원이 장성에 입향한 이래 16대 종손가(종손 기준서)이다. 기원에게는 장자 기대익이 있었으나 봉사(奉祀)를 하지 못하였고 둘째아들인 기대유가 봉사손이었으며 그 장자가 기효간이므로 사실상 참판공 기효간의 종손이다. 더군다나 기원의 형 기형(奇迥)의 후손 역시 인조대에 역모에 휘말려 봉사(奉祀)를 하지 못하게 되어 금강종가에서 기찬(奇欝)까지 봉사를 해왔고, 기찬의 형 기유(奇裕)도 손자대에서 절손되어²⁹⁾ 금강종가에서 기축과 기건까지 봉사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의 전체 행주기씨의 대종가이다.³⁰⁾ 그런 까닭에 정무공 기건의 교지부터 소장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장성의 행주기씨가의 대종가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건(奇虔)과 기찬의 고신 교지가 금강종가에 전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장성행주기씨가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강 기효간 이후로 강단(講壇)이 형성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이었다.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으나 고문서에서는 그런 사실들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전체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점차 드러날 것으로 여긴다.

장성 행주기씨가의 문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과거시험 답안지 및 관료 관련 문서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다. 향촌사회의 사족층은 대체로 18·19세기에 이르면 중앙 정계와 단절되고 향촌사회로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집안과 달리 이 집안에서는 대대로 관직 진출을 시도하여 누대에

29) 기찬의 장자였던 기유 집안에 전해졌던 서적 가운데 일부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1322년본 『예기대문』에는 '덕양세가(德陽世家)'와 '기찬사운(奇欝士贊)'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어, 기유 후손대에서 팔려나간 것이 확인이 된다.

30) 족보상으로는 6세 기효순(奇孝順) 7세 기현(奇顯) 8세 기중평(奇仲平) 9세 기면(奇勉)까지 봉사손이므로 현 금강종손이 사실상 23대 종손이다. 그러나 기씨는 그 선대 묘소도 실전되었던 까닭에 묘소가 확실하여 봉사하고 있는 정무공 기건(奇虔)을 현조(顯祖)로 한다. 그러므로 현 금강종손이 정무공의 19대 종손이 된다. 행주기씨는 믿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 기순우부터 1세를 세고, 그 이전 고세계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고세계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걸쳐 소과 입격자를 배출하고 19세기에는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과거 시험 및 관직 관련 문서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다.

한편, 가계 계승 및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호적 문서, 재산상속, 매매문기·치부류 등의 경제활동 문서들은 일반적인 사족 후손가의 문서 소장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³¹⁾ 호적문서를 통해 장성 세가와 고문서의 종가 전래 경위를 알 수 있다. 소지류에는 11건에 이르는 산송 관련 자료가 있는데 조선후기 향촌의 산송의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1894년의 소지는 동학농민혁명 뒤 향촌사회의 안정책을 논하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십여 종에 달하는 가승(家乘)이 있는데 이를 통해 대동보와 대조하면 상당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 역시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금강문중 고문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간찰이 다수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전체 2천 7백여 점 가운데 1천 1백여 점으로 42%에 이른다. 간찰은 1차 자료로서 귀중한 사료임에도 최근 들어서야 역사학, 문화재학 분야에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나 중앙과 지방의 연계, 제도사와 경제사 등에서 비중있게 다룰만하다. 이러한 시점에 다수 간찰 자료가 공개되고 기탁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버지 기윤진(奇允鎭)과 아들 기양연(奇陽衍)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많다. 한글편지도 16통이 보인다. 간찰첩은 기정진, 기우만 등 종인들은 물론 정경세, 송시열, 홍석주, 남공철, 김조순, 김수항, 이재 등의 간찰도 보인다.

제문이나 만장은 향촌 사회의 교류관계와 인적 연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록유물이다. 시문도 강학과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고서는 고문서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참제록』 같은 경우는 유일본으로 지역 연망을 살펴볼 수 있어서 사료적 가치도 부여 할 수 있다. 『송암집』에 수록되지 않은 기정익, 윤증, 박상현의 사단칠정 논쟁과 이후 노소분당 이후 기정익이 중심이 되어 필암서원, 모암서원 등을 중심으로 노론계 서원을 확장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내용들도 있다.

노사의 사실상 스승으로 볼 수 있는 입재 기재선의 필사한 유일본 『입재집』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며 『노사집』 초간본 완질이 전하는데 이후 간행되는 노사집과의 대교 등 정본화사업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기건, 기효간, 기정

31) 간찰을 통해 솟가마를 운영하고 철물점을 경영하였던 사실도 드러나며, 문헌기록을 통해 대전(賞錢)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점차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익, 조찬한을 봉향하였던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의 추산서원(秋山書院) 관련 고문서도 있어 앞으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활용방안을 곁하여-

이상에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된 자료인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장성 정착, 금강종가 내역, 고문서 전래경위, 현황과 종류, 성격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목록과 사진만으로는 그 같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간 수차례 연구에도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조금씩만 이루어져 전체적인 고문서의 양도 확정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략적으로 훑어보고 가치를 가늠해 보았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정밀한 정리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보와 관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기탁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이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 시설이 갖춰지고 연구진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지만,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은 분류와 정리의 방식³²⁾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³³⁾

두 번째는 정리 연구와 함께 자료의 가치에 걸맞는 지위의 부여도 필요하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정도 그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는 “유형문화재: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들고 있다. 지정권자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나눈다.³⁴⁾ <장성 행주기씨

3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정리 양식 가운데 고문서분야는 <표 4>참조.

33)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되는 『고문서집성』은 호남지방 자료가 18책이 간행된 바 있다. 일기는 『이재난고』(10책), 『박시순일기』(1책, 임실) 등이 간행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수집사료해제집』을 간행하고 있다. 이들과 연계되면서도 호남학 자료로서의 특징을 지닐 수 있는 변별력도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

34) 전적·서적·문서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지정문화재 지정기준도 거의 같은데 향토사적가치를 검토한다(문화재보호법,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등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가. 전적류 : ①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금강종가 소장 고문서>, 또는 <문적> 등으로 일괄문서를 지정해야 성격과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지정기준에서 보듯이 전적, 서적, 문서로서의 가치 규명을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괄문서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꺼번에 소장 보관되어 있지만 1960년대나 1970년대의 자료도 포함해야 되는가의 문제이다.³⁵⁾

두 번째와 관련하여 유사한 법령 속에 규정된 개념용어와 해당 기관간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활동방향과도 관련하여 검토해 볼 만하다. 기탁자료를 “호남진흥원 자료-장성 명문종가 자료-지정문화재”로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인식을 통해 활동과 활용의 방안을 넓혀 보자는 것이다. 기탁자료와 유사한 개념용어들을 살펴보자.

- 호남학: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자료: 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멸실될 위기에 있다고 인정되는 고서, 고문서, 목판, 서화, 기타 유품 등 수장고에 수입되는 한국학 관련 자료³⁶⁾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관리규정)
- 유형문화재: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보호법)
- 고전문헌: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인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 (한국고전번역원법)
- 사료: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②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③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5) 고문서, 전적, 문적 등의 지정문화재 가운데 종가 소장 문화재 지정현황은 <표 5> 참조

36) 한국학자료(기록문화유산 및 민속관련유산)의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재)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학진흥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기록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관(行政博物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미술관자료: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도서관법)

이들 용어가 규정된 법령과 관련 있는 기관들을 보면 중앙기관으로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들 수 있다. 지방기관이나 공공기관까지 든다면 부지기수이다. 이들 기관과 자료의 조사, 정리,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장(家藏)』, 『고봉집(高峯集)』, 『기씨가승』, 『기척질문후(奇戚姪文)』, 『노사집』, 『백석헌유집』, 『보산집(普山集)』, 『사골(槎橋)』, 『송사집(松沙集)』, 『송암집(松巖集)』, 『식재집(植齋集)』, 『예기대문』, 『이재난고(頤齋亂藁)』, 『입재집』, 『추담집(秋潭集)』, 『하서전집』, 『호구총수』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해제집』 6-장성 幸州奇氏, 정읍 道康金氏, 합천 老栢書畵, 산청 道川書院-, 2012.

김봉근, 『노사학파의 형성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윤여정 편, 『대한민국행정지명』1-전남·광주편-, 향지사, 2009.

장성군-조선대학교박물관 편, 『장성군의 문화유적』, 1999.

전남대 박물관, 『고문서』-전남대학교박물관 고문서 조사보고서 제5책-, 1999

조선대 박물관, 『학문의 씨를 뿌리고 문장의 베를 짜다: 장성 행주기씨가 소장 유물 특별전』, 2012

행주기씨대중회, 『행주기씨대동보 갑신보』, 2004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행주기씨가 소장 고문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규정집』, 2017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 기탁목록

김봉곤, 「장성 행주기씨가문의 역사와 인물」, 『학문의 씨를 뿌리고 문장의 베를 짜다: 장성 행주기씨가 소장 유물 특별전』, 조선대 박물관, 2012.

권수용, 「간찰을 통해 본 장성 유생 기양연의 과거 합격 과정」,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3.

권수용, 「기우만의 수신간찰과 교유의 성격」, 『영남학』 2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3.

김경숙, 「장성 행주기씨의 문서와 생활」, 『수집사료해제집』 6(1편: 장성 행주기씨 소장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12.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산송 실태와 대응책-장성 행주기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58, 호남사학회, 2015.

김희태, 「필암서원의 역사」, 『서원 향사』-무성서원·필암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박재상, 「해제」, 『고문서』-전남대박물관 고문서 조사보고서 제5책-, 전남대 박물관, 1999.

안동교, 「노사 기정진의 학문과 그 전승」, 『학문의 씨를 뿌리고 문장의 베를 짜다: 장성 행주기씨가 소장 유물 특별전』, 조선대 박물관, 20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

<표4>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관리규정 고문서 정리 양식[별지 제1-나호]

고문서대장				분류기호				
문서명								
발급자 혹은 발급관		발급자 (기관)		신분 지역		관계		
추사 혹은 추사간		발급자 (기관)		신분 지역		관계		
작성연도								
작성지역								
서지사항	원본교부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형태		<input type="checkbox"/> 날장 <input type="checkbox"/> 가철 <input type="checkbox"/> 절첩 <input type="checkbox"/> 족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질		<input type="checkbox"/> 순지 <input type="checkbox"/> 장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자		<input type="checkbox"/> 한문 <input type="checkbox"/> 한글 <input type="checkbox"/> 국한문 <input type="checkbox"/> 이두문있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체		<input type="checkbox"/> 楷書 <input type="checkbox"/> 草書 <input type="checkbox"/> 行書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신 (印信)		署押 手決 手寸 手掌 印章 鍼 印文					
	인장형태		<input type="checkbox"/> 원형 <input type="checkbox"/> 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뒷면기록				크기 (가로×세로cm)		판수		
첨부문서	수량		명칭			연대		분류기호
						연		월
						일		
	첨부문서1							
	첨부문서2							
	첨부문서3							
첨부문서4								
첨부문서5								
소장현황	원소장지(소장처)		주소					
			전화번호					
	소장일자							
	소장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입 <input type="checkbox"/> 기증 <input type="checkbox"/> 기탁 <input type="checkbox"/> 수집 <input type="checkbox"/> 기타[]					
	출판여부		책명		출판사		연도	
보존처리여부								
소장경위								
개요								
보존상태								
작성일자				작성자				

<표5> 고문서류 지정문화재 중 종가 소장 문화재 목록(문화재청 <http://www.cha.go.kr/> 발췌)

연번	지정별	번호	명칭(한자)	소재지	시대	지정일	수량
1	보물	제160호	柳成龍 宗家 文籍	경북 안동시	조선	1963.01.21	23점
2	보물	제460호	柳成龍 宗家 遺物	경북 안동시	조선	1967.07.15	일괄 (홀, 혁화 등 7종, 분재기 녹권 등 14종)
3	보물	제482호	尹善道 宗家 文籍	전남 해남군	조선	1968.12.19	일괄 (금쇄동집고, 은사첩, 입안 등)
4	보물	제547-1호	金正喜 宗家 遺物	서울 용산구	조선	1971.09.01	일괄 (인장, 벼루, 붓, 서첩)
5	보물	제547-2호	金正喜 宗家 遺物 一括	제주 서귀포시	조선	2006.07.18	26점
6	보물	제549호	權柱 宗家 古文書	경북 안동시	조선	1971.08.30	2장
9	보물	제876호	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	경북 안동시	조선	1986.10.15	일괄(12종)
10	보물	제896호	權機 宗家 典籍	경북 봉화군	조선	1986.11.29	일괄 (15종 185책)
11	보물	제901호	權機 宗家 古文書	경북 봉화군	조선	1986.11.29	일괄 (15종 274점)
12	보물	제902호	權機 宗家 遺墨	경북 봉화군	조선	1986.11.29	일괄 (8종 14점)
13	보물	제905호	金誠一 宗家 典籍	경북 안동시	조선	1987.03.07	일괄 (56종 261책)
14	보물	제906호	金誠一 宗家 古文書	경북 안동시	고려	1987.03.07	일괄 (17종 242점)
15	보물	제1001호	梁山李氏 宗家 古文書	경남 양산시	조선	1989.05.23	일괄 (6종 16점)
16	보물	제1002호	權柱 宗家 文籍	경북 안동시	조선	1989.05.23	일괄 (9종 14점)
17	보물	제1004-1 호	趙靖 宗家 文籍	경북 상주시	조선	1989.05.23	일괄 (10종 62점)
18	보물	제1004-2 호	趙靖 宗家 文籍	경북 상주시	조선	1991.12.16	3장

|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과 기탁 고문헌 |

연번	지정별	번호	명칭(한자)	소재지	시대	지정일	수량
19	보물	제1005호	張末孫 宗家 古文書	경북 영주시	고려	1989.05.23	일괄 (5종 18점)
20	보물	제1018호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경북 안동시	조선	1990.03.02	일괄 (7종 416점)
21	보물	제1019호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典籍	경북 안동시	조선	1990.03.02	일괄 (13종 61점)
22	보물	제1202호	李賢輔 宗家 文籍	경북 안동시	조선	1994.07.29	일괄 (7책, 1첩, 23건)
23	보물	제1203호	吳湮 宗家 文籍	경북 고령군	조선	1994.07.29	일괄 (12책, 110건)
24	보물	제1725호	金宗直 宗家 古文書	경북 고령군	조선	2011.11.01	고문서 79매
25	광주 유형	제22호	奇大升 宗家 所藏 文籍	광주 남구	조선	1994.07.21	18점
26	광주 유형	제25호	李愼儀 宗家所藏 古文書	광주 북구	조선	1998.05.07	일괄 (7종 57점)
28	대구 유형	제51호	옷골 慶州崔氏 百弗庵派宗家 所藏 典籍	대구 동구	조선	2003.04.30	일괄 (2종 664점)
29	경북 유형	제148호	寧海 蘭阜宗家 文書	경북 영덕군	조선	1982.02.24	일괄 (전적 2, 고문서 12)
30	경북 유형	제170호	醴泉 權氏宗家 文籍	경북 예천군	조선	1983.06.20	일괄 (2종 15책)
32	경남 유형	제343호	南平文氏 宗家 所藏 古文書	경남 거창군	조선	1998.11.13	25점 (6권 19매)

사골소고

박종훈(조선대학교)

사굴소고(楂橘小考)

박종훈(조선대학교 한문학과)

1. 楂橘

‘楂橘’이라는 의미는 『莊子』 「天運」의 다음 구절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저 삼황오제의 예의와 법도는 서로 같아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황오제의 예의와 법도를 비유하자면, 풀명자나무[柎]·배나무[梨]·귤나무[橘]·유자나무[柚] 열매와 같아, 그 맛을 서로 다르지만 모두 입에 맞다.

故夫三皇五帝之禮義法度，不矜於同，而矜於治。故譬三皇五帝之禮義法度，其猶柎梨橘柚邪，其味相反，而皆可於口。

‘楂橘’의 ‘楂’는 뗏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풀명자나무’를 가리키기도 한다. ‘楂’는 『莊子』 「天運」에 보이는 ‘柎’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결국 서로 다른 맛을 갖고 있는 열매이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시적 우열의 차원을 떠나, 내용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는 것이다. 실제 『사굴』의 앞 부분에는 詩社에 참석했던 다양한 이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의식한 상태에서 시적 우열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 언급으로 보인다.

둘째, 자신의 작품에 대한 謙辭로도 접근할 수 있다. 수많은 작품을 기록해 두었지만, 그 작품이 모든 이들의 기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시적 재능 또한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사굴』이 한 개인의 작품을 수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의 작품에 대해서는 謙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굴’의 표제는 결국 다양한 시인들의 작품을 실었거나 한 개인의 작품에 대한 謙辭의 의미로 활용한 것인데, 『사굴』의 편집자 혹은 작가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과는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편집자 혹은 작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어떤 의미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길이 없다. 다만 『사굴』에 실린 작품을 일람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楂橘』 소재 작품 일람

우선 『사굴』에 실린 시 작품을 詩體別로 구분해 보면, 五言絶句 2首, 五言律詩 9首, 七言絶句 13首, 七言律詩 364首, 五言古詩 2首, 七言古詩 1首, 六言古詩 1首로 총 220題 392首이다.

이중, 작품의 제목 혹은 작품의 말미에서 작가를 언급한 경우가 산재되어 있는데, 일단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굴』에 실린 작품을 일별하기 위해 차례대로 작품 번호를 부여했다. 또한 작품에서는 號만을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 實名이 확인되는 작품은 실명을 부기했다.

1. 「駱山韻」(칠언율시 20首, 11人.) : 海藏-申錫愚, 穎樵-金炳學, 芍玉-洪鍾應, 悠齋-洪鍾序, 東樊-李晩用, 晉齋-趙在應, 圭庭-徐承輔, 經臺-金尙鉉, 丹溪-趙在豐, 海觀-韓命源, 石農-李鍾愚.
2. 「復會駱山」(칠언율시 9首, 9人.) : 石農-李鍾愚, 經臺-金尙鉉, 丹溪-趙在豐, 芍玉-洪鍾應, 穎樵-金炳學, 悠齋-洪鍾序, 海觀-韓命源, 海藏-申錫愚, 晉齋-趙在應.
3. 「駱山雅集」(칠언율시 9首, 9人.) : 海藏-申錫愚, 穎樵-金炳學, 經臺-金尙鉉, 海觀-韓命源, 芍玉-洪鍾應, 石農-李鍾愚, 悠齋-洪鍾序, 晉齋-趙在應, 丹溪-趙在豐.
4. 「東社夜話」(칠언율시 5首, 5人.) : 雲臯-徐有英, 經臺-金尙鉉, 玉坡-申弼永, 曼塘-柳▣▣, 琴眉-金相喜.
5. 「冬夜雅會」(칠언율시 9首, 9人.) : 磬石, 經臺-金尙鉉, 石農-李鍾愚, ▣▣, 少游-權用正, 玉坡-申弼永, 海藏-申錫愚, 原泉-洪祐健, 薇西-金在顯.
6. 「南社夜話」(칠언율시 7首, 7人.) : 規亭, 原泉-洪祐健, 詩樵-李壽敏, 海藏-申錫愚, 少游-權用正, 西囷, 琴眉-金相喜.
7. 「元夜」(칠언율시 2首, 2人.) : 經臺-金尙鉉, 雲臯-徐有英.
8. 「早春書會」(칠언율시 1首, 1人.) : 檀樊-尹致肇.
9. 「紫下詩集」(칠언율시 2首, 2人.) : 竹史-尹永善, 齷堂-李象秀.
10. 「早冬書事」(칠언율시 1首, 1人.) : 齷堂-李象秀.
11. 「挹淸樓」(칠언율시 1首, 1人.) : 心庵-趙斗淳.
12. 「一碧亭」(칠언율시 2首, 1人.) : 石農-李鍾愚.
13. 「江舍高吟」(칠언율시 1首, 1人.) : 長藕.
14. 「南社雅會」(칠언율시 1首, 1人.) : 長藕.
15. 「歲暮述懷」(칠언율시 1首, 1人.) : 竹史-尹永善.
16. 「冬夜招邀」(칠언율시 2首, 1人.) : 齷堂-李象秀.
17. 「松陽老人七旬韻」(칠언율시 11首, 11人.) : 金東獻, 鄭元容, 金興根, 金左根, 趙斗淳, 洪在龍, 金汶根, 金炳學, 洪在喆, 南秉哲.
19. 「雨中小集」(칠언율시 1首, 1人.) : 丹溪-趙在豐.
34. 「暮春」(칠언율시 1首, 1人.) : 石丈趙▣▣.

41. 「竹下書屋」(칠언율시 1首, 1人.) : 雲洲-李重憲.
42. 「春日柳堂書屋」(칠언율시 4首, 4人.) : 竹下-崔遇亨, 雨田-鄭顯德, 畊雲-李基鎬, 蘭史-崔鉉九.
43. 「客館賦懷」(칠언율시 3首, 3人.) : 蕙圃-金東一, 雨田-鄭顯德, 竹下-崔遇亨.
44. 「春日」(칠언율시 1首, 1人.) : 雨田-鄭顯德.
45. 「城南夜話」(칠언율시 1首, 1人.) : 丹溪-趙在豐.
46. 「與友拈韻」(칠언율시 1首, 1人.) : 石丈.
47. 「海門晚眺」(칠언율시 1首, 1人.) : 蘭史-崔鉉九.
48. 「偶吟」(칠언율시 1首, 1人.) : 石丈.
52. 「斗室沈相公留飲一日」(칠언율시 1首, 1人.) : 東樊-李晚用.
77. 「登明雪樓」(칠언율시 1首, 1人.) : 竹下-崔遇亨.
78. 「苦雨」(칠언율시 1수, 1人.) : 東樊-李晚用.
109. 「除夕」(칠언율시 1首, 1人.) : 丹溪-趙在豐.
111. 「友人晬席」(칠언율시 1首, 1人.) : 少游-權用正.
112. 「冬夜」(칠언율시 2首, 1人.) : 雨田-鄭顯德.
130. 「詠怪松」(칠언고시 1首, 1人.) : 蘭史-崔鉉九.
131. 「石鏡樓雅集」(칠언율시 1首, 1人.) : 穎漁-金炳國.
132. 「蓮亭十月韻」(칠언절구 1首, 1人.) : 心庵-趙斗淳.
133. 「送人赴丹城任所」(오언율시 1首, 1人.) : 澹人-申佐模.
134. 「朴蕉坡興壽周甲韻」(칠언율시 1首, 1人.) : 雪坡-崔弘周.
136. 「吳園小集」(칠언율시 1首, 1人.) : 海士-洪翰周.
137. 「叢桂堂小集」(칠언율시 2首, 2人.) : 石湖-洪在鳳, 研雲-宋柱獻.
138. 「與忠州牧伯趙三巖然明遊山寺」(오언고시 2首, 육언고시 1首, 오언절구 1首, 칠언절구 1首, 칠언율시 11首, 오언율시 1首, 1人.) : 屏巖-李俊英.
139. 「山居」(오언절구 1首, 1人.) : 月溪-李炳達.
141. 「初秋解官歸樊溪次士珍韻」(칠언율시 1首, 1人.) : 彝齋-權敦仁.
145. 「除夕」(칠언율시 2首, 1人.) : 石梧-尹致英.
146. 「奉次苔泉金尙書履陽落花韻」(칠언율시 1首, 1人.) : 紫霞-申緯.
215. 「柳絮」(칠언율시 7首, 1人.) : 雨村-南尙教.
216. 「柳絮」(칠언율시 7首, 1人.) : 朴齊家.
217. 「柳絮」(칠언율시 5首, 1人.) : 趙景田.
218. 「暎楓亭」(칠언율시 3首, 오언율시 1首, 1人.) : 大陵-李敦榮.
219. 「奉和李大陵暎楓亭韻」(칠언율시 1首, 1人.) : 雪坡-崔弘周.
220. 「奉別崔雪坡弘周」(칠언율시 1首, 1人.) : 月波-尹行駿.

이상은 『사굴』에서 작가 정보를 제공한 작품을 열거한 것이다. 오언절구 2수, 오언율시 3수, 칠언절구 2수, 칠언율시 151수, 오언고시 2수, 육언고시 1수로 총

51題, 161首의 작품에 작가가 거론되어 있다. 『사굴』에 실린 전체 작품이 총 220題 392首인데, 작가가 거론된 것이 51題 161首임을 감안하다면, 詩題의 약 23%, 실제 작품 수의 약 40%의 작가가 밝혀진 셈이 된다.

『사굴』에서 거론한 작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작가의 생몰 등의 정보는 생략하겠다.

經臺-金尙鉉	磬石	畊雲-李基鎬
規亭	圭庭-徐承輔	琴眉-金相喜
金東獻	金汶根	金左根
金興根	南秉哲	丹溪-趙在豊
檀樊-尹致肇	澹人-申佐模	大陵-李敦榮
東樊-李晩用	蘭史-崔鉉九	曼塘-柳▣▣
薇西-金在顯	朴齊家	屏巖-李俊英
西函	石農-李鍾愚	石梧-尹致英
石丈-趙▣▣	石湖-洪在鳳	雪坡-崔弘周
少游-權用正	詩樵-李壽敏	心庵-趙斗淳
齷堂-李象秀	研雲-宋柱獻	穎漁-金炳國
玉坡-申弼永	雨田-鄭顯德	雨村-南尙教
雲阜-徐有英	雲洲-李重憲	原泉-洪祐健
月溪-李炳達	悠齋-洪鍾序	彝齋-權敦仁
紫霞-申緯	芍玉-洪鍾應	長藕
鄭元容	趙景田	竹史-尹永善
竹下-崔遇亨	晉齋-趙在應	海觀-韓命源
海士-洪翰周	海藏-申錫愚	蕙圃-金東一
洪在龍	洪在喆	

밝혀진 작가는 총 56인이다. 이들은 당대 서로 교류하고 있었던 인물로 보인다. 다만 위에 보이는 인물 중, ‘朴齊家’가 보이는데, 正祖 때의 인물인 楚亭 朴齊家(1750~1805)로 보인다. 박제가를 작가로 거론한 작품은 216번 작품인데, 「柳絮」란 제목 아래 칠언율시 7首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문집총간의 박제가 개인문집인 「貞齋閣集」에는 이 작품이 실려 있지 않아, 실제 초정 박제가의 작품인지, 아니면 당대 다른 인물인지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이는 인물 중 東樊 李晩用(1792~1863)의 언급을 통해서, 정조 때의 초정 박제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만용의 저술인 『東樊詩抄』(미국하버드 대학 연칭도서관 소장본)에 「柳絮」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작품을 실었고 제목 아래 “朴齊家, 號楚亭.”이라고 부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초정 박제가의

작품이 분명한데, 박제가의 개인문집인 『貞齋閣集』에는 실려 있지 않을 뿐이다. 또한 『사굴』에는 「柳絮」라는 제목 아래 박제가의 칠언율시 7수를 수록했지만, 이 만용의 『東樊詩抄』에는 칠언율시 8수가 수록되어 있다. 『東樊詩抄』에 실린 여덟 번째 수가 『사굴』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박제가의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외에도 『사굴』 소재 작가가 거론된 작품을 통해 각 개인의 작품 편목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각 인물에 대한 개인문집을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만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인물들의 개인문집은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 중, 東樊 李晩用(1-5번, 52번, 78번 작품)·齷堂 李象秀(9-2번, 10번, 16번 작품)·心庵 趙斗淳(11번, 132번 작품)·鄭元容(17-2번 작품)·南秉哲(17-11번 작품)·澹人 申佐模(133번 작품)·海士 洪翰周(136번 작품)·紫霞 申緯(146번 작품) 등의 개인문집은 한국문집총간에 실려 있다.

그러나 心庵 趙斗淳의 132번 작품인 「蓮亭十月韻」은 개인문집인 『心庵遺稿』 권2에 「文化遠觀亭, 書示洪使君.」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澹人 申佐模의 133번 작품인 「送人赴丹城任所」는 개인문집인 『澹人集』 권3에 「送崔竹下赴丹城任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또한 海士 洪翰周의 136번 작품인 「吳園小集」은 개인문집인 『海翁詩藁』 권2에 「吳園小集」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을 뿐이었다. 이밖에 東樊 李晩用이나 齷堂 李象秀, 鄭元容, 南秉哲, 紫霞 申緯의 작품을 개인문집에 실려 있지 않았다. 게다가 146번 작품인 「奉次菴泉金尙書履陽落花韻」에서 이 작품의 작가가 ‘紫霞 申緯’라고 부기했지만, 신위의 개인문집인 『警修堂全藁』에는 실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東樊 李晩用의 개인문집인 『東樊集』 권2에 「奉次菴泉金公履陽落花詩韻」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 편집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굴』에서 밝혀진 작가들은 대부분 당대 詩壇을 조직하여 詩社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일단 『사굴』에 실린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도 이들의 활발한 시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작품인 「駱山韻」의 경우, 칠언율시 20수인데 참여했던 인물이 11명이나 된다. 또한 3번 작품인 「駱山雅集」, 4번 작품인 「東社夜話」, 5번 작품인 「冬夜雅會」, 6번 작품인 「南社夜話」, 9번 작품인 「紫下詩集」, 14번 작품인 「南社雅會」, 49번 작품인 「會雲史宅」, 64번 작품인 「牧丹亭畫集」, 70번 작품인 「暮春鄉社」, 84번 작품인 「會東林亭」, 131번 작품인 「石鏡樓雅集」, 136번 작품인 「吳園小集」, 137번 작품인 「叢桂堂小集」 등을 통해서도, 시단을 이루어 활발한 시사활동을 통해 서로 교류했음이 확인된다. 특히, ‘東社’나 ‘南社’는 1820년에서 1840년 이후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시사로, 앞에서 열거한 인물 중에

는 이들 시사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정황은 시사 활동이 끝난 시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懷人詩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사굴』에서 작가로 거론되었던 雲阜 徐有英(1801~1874)은 1868년 겨울에 연작 회인시를 지은 바 있다.³⁷⁾ 또한 橘山 李裕元(1814~1888)도 회인시 19수를 남겼고³⁸⁾ 南秉哲(1817~1863)도 회인시 32수,³⁹⁾ 趙冕鎬(1804~1887)도 회인시 82수를 지었는데,⁴⁰⁾ 이들 작품 중에 앞에서 언급한 인물들이 적지 않게 포진되어 있다. 이 밖의 작품 역시 개인적인 감회를 쓴 것도 있지만, 교유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사굴』에 실린 작품은 당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단과 시사활동의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며, 시단의 주요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인물의 개인문집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개인의 문집을 통해, 그의 행적을 밝히고 한 개인의 시사 활동을 일정 정도 파악한 후, 다시 한 자리에 모아 입체적으로 재구해야만 당대 시단과 시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명료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것처럼, 『사굴』에는 실려 있는데, 개인문집에 실리지 않은 작품이 적지 않다. 『사굴』에 실린 각 개인 작품의 대부분이 개인문집에는 실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굴』을 통해 당대 시단과 시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개인 작품의 편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굴』에 실린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겠다.

우선 전체 작품의 40% 정도는 ‘雅集’이나 ‘會’ 등의 시사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 그러한 시사에 참여하게 된 영광 및 시사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서로의 작품에 대한 칭송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 개인과의 교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그 밖의 작품인 「歲暮述懷」나 「泛舟杏洲」, 「閑話」, 「郭外晚春」, 「春日」, 「上元夜玩月」 등 대부분의 작품은 개인적인 정회를 서술한 것이다.

편집자 혹은 작가가 확인되지 않은 『사굴』에는 총 220題 392首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작가를 밝히고 있는 작품은 총 51題, 161首이다. 전체 작품의 40% 정도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론된 작가만 해도 총 56人으로, 이들은 당대 시단을 형성하고 활발한 시사활동을 공유했던 인물들로 보인다. 또한 개인문집에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인문

37) 박종훈, 「운고 서유영의 회인시 일고」, 『운지논총』45집, 온지학회, 2015.

38) 박종훈, 「橘山 李裕元의 懷人詩 一考」, 『운지논총』47집, 온지학회, 2016.

39) 한영규, 「남병철 회인시 연구」, 『한문교육연구』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40) 김용태, 「玉垂 趙冕鎬 漢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집이 확인된 인물들 중에서도 『사굴』에 실린 작품이 각 개인문집에 실리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사굴』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당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사활동의 일단을 확인하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사굴』에 실린 각 개인의 작품을 통해, 해당 작가의 작품의 편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작가 혹은 편집자, 東樊 李晩用

앞서 살핀 것처럼, 『사굴』에 실린 작품 중에서 작가로 밝혀진 인물은 모두 56인이다. 그렇다면 『사굴』의 작가 혹은 편집자는 이 56인 중의 1인이거나, 혹은 이들과 교유했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굴』에는 작가 혹은 편집자를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을 남아 있지 않기에, 작가 혹은 편집자를 밝히는 일은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일단 작가 혹은 편집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굴』에 실린 392首 중 작가가 밝혀진 161首를 제외한 231首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굴』에서 언급한 각 개인의 문집을 모두 모아,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결코 시간적 혹은 물리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필자는 『사굴』에 실린 각 작품을 일람하면서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해, 혹시나 동일한 작품이 검색되는지 확인했다. 그러던 중, 東樊 李晩用(1792~1863)에 집중하게 되었다. 먼저 이만용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晩用의 본관은 소주, 자는 汝成, 호는 東樊이다. 1858년(철종 9) 戊午別試文科에 丙科 3등으로 급제했다. 벼슬은 奉事로 1860년(철종 11) 右通禮를 거쳐 兵曹參知에 이르렀다. 저서로 『東樊集』이 있는데, 증손인 李源昇이 1909년(융희 3)에 간행했다. 책은 모두 2책 4권인데, 附錄에는 아들 李之衡이 쓴 「溪堂集抄」가 실려 있다. 구성을 보면 권1~3에는 山水, 亭樓 등 자연을 읊은 五言絶句, 五言律詩, 七言絶句, 七言律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4에는 書, 雜文, 祭文, 賦 등이 실려 있다.⁴¹⁾

이만용의 개인 문집은 『東樊集』으로 한국문집총간 303권에 실려 있다. 『동변집』에는 권1부터 권3까지가 시작품 총 530수가 실려 있다. 『동변집』 말미에는 증손인 李源昇이 쓴 「東樊集跋」이란 글이 실려 있지만, 짧은 글로 이만용의 행적을 상세히 파악할 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제공하는 해제 부분에도 당대 시단이나 시사활동

4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의 정보를 가져온 것이다.

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번집』의 시작품 중, 권1의 「西湖亭, 與六橋共賦.」, 「走筆, 次北社梅花詩, 三十首.」, 「徐友家, 與諸益共賦.」, 「楠園夕飲」, 「與諸友, 次范石湖韻.」, 「春日茗上, 同諸詩人.」, 「同友人拈韻」, 「西山書屋, 共賦菊.」, 「余置梅一本, 甚短小, 根株不踰三寸許. 種之三歲, 始有花, 花數滿七, 邀社友共賦.」, 권2의 「與南社諸公看月」, 「玉壺山舍, 陪春山金相公弘根, 與諸公夜飲.」, 「與諸友, 留宿松隱書屋.」, 「夜集徐將軍園林有懷」, 「南松隱書屋, 會諸友同作.」, 권3의 「同友人作」, 「徐東亭書樓會話」, 「雪後與諸友分韻賦雪」 등의 작품을 통해, 이만용이 ‘北社’나 ‘南社’ 등의 시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사굴』에서 동번 이만용을 작가로 거론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駱山韻」 중 다섯 번째 수.(칠언율시 1수)
52. 「斗室沈相公留飲一日」(칠언율시 1수)
78. 「苦雨」(칠언율시 1수)

『사굴』에서 이만용의 작품이라고 밝힌 것은 위에 보이는 세 작품뿐이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은 한국문집총간에 있는 『동번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다음으로 『사굴』에서는 작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만용의 『동번집』에 실려 있는 작품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54. 「月波亭夜遊, 塗病不赴.」(칠언율시 1수)
55. 「值雨松隱宅」(칠언율시 1수)
80. 「肇夏」(칠언율시 1수)
113. 「練光亭」(칠언율시 1수)
114. 「寄友人」(칠언율시 2수)
115. 「與友共賦」(칠언율시 1수)
121. 「秋悲」(오언율시 1수)
127. 「聽雨」(칠언절구 1수)
128. 「和萬柳堤情字韻」(칠언절구 3수)
146. 「奉次茗泉金尙書履陽落花韻」(칠언율시 1수)
151. 「玉壺舍, 陪春山金公夜飲.【金公名弘根】」(칠언율시 1수)
152. 「雨夜少眠, 遇閱舊詩云云」(칠언율시 2수)
162. 「陶村學士宅, 逢嶠南趙秀才.」(칠언율시 4수)
163. 「鶴橋至月十一日夕」(칠언율시 1수)
164. 「臨湍縣齋, 遇綾山作.」(칠언율시 1수)
179. 「彌勒」(칠언율시 1수)

- 180. 「長湍館，夜與主守尹綱堂【正鎮】話舊.」(칠언율시 2수)
- 181. 「無題」(칠언율시 1수)
- 182. 「長林【在平壤地，皆箕子時種柳.】」(칠언율시 1수)
- 183. 「溟江【在平壤地】」(칠언율시 1수)
- 184. 「亭榭」(칠언율시 1수)
- 187. 「官妓」(칠언율시 1수)
- 193. 「泛槎亭觀瀑，與起山作.」(칠언율시 1수)
- 196. 「西堂相公六十四歲壽席呈」(칠언율시 1수)
- 197. 「梨花村舍，人日與李友大白同作.」(칠언율시 2수)
- 199. 「聞中和新使君到任，先寄二首.」(칠언율시 2수)
- 200. 「復與中和倅作」(칠언율시 2수)
- 201. 「大白幕次夜飲，仍登多景樓小讌.」(칠언율시 2수)
- 204. 「次石湖見寄」(칠언율시 1수)
- 206. 「臨湍郡參，又次玉溪.」(칠언율시 1수)
- 208. 「留客東林，賦春山花月夜.」(칠언율시 3수)
- 209. 「東林之曉，風雨忽作，花事已衰，仍與諸人作.」(칠언율시 3수)

『사굴』에 실려 있으면서 작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작품 중에, 이만용의 『동변집』에 실린 작품을 나열한 것으로, 총 32題 46首(칠언절구 1수, 칠언율시 45수)이다. 물론 제목이나 작품의 내용에 있어 字句의 출입은 보인다. 또한 146번 「奉次苔泉金尙書履陽落花韻」이란 작품에 대해서는 ‘紫霞 申緯’가 작가라고 부기했지만, 실제 신위의 개인문집인 『警修堂全藁』에는 보이지 않고 이만용의 『동변집』 권2에 보여, 이만용의 작품으로 파악했다.

이만용의 문집은 『동변집』인데, 『東樊詩鈔』라는 저작도 확인되었다. 『동변시초』는 ‘미국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 소장본’과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이 중 미국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 소장본인 『동변시초』에 실린 이만용의 작품과 『사굴』에서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을 하나하나 대조해 본 결과, 『사굴』에서는 작가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만용의 작품으로 파악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27. 「遊燕尾洞」(칠언율시 1수)
- 146. 「奉次苔泉金尙書履陽落花韻」(칠언율시 1수)
- 147. 「送羽堂趙侍郎【秉鉉】出按關西」(칠언율시 1수)
- 148. 「琴江訪山泉日作」(칠언율시 2수)
- 149. 「西隣棋集七夕後二日」(칠언율시 2수)
- 150. 「過苔溪學士」(칠언율시 1수)

152. 「雨夜少眠，遇閱舊詩云云.」(칠언율시 2수)
153. 「健翁金侍郎陽淳藍水樓夜集」(칠언율시 3수)
154. 「復拈宋人韻賦雨」(칠언율시 1수)
155. 「自月波亭，泛舟下挹清樓，與黃坡愚山陪健翁方野二侍郎作三首.」(칠언율시 3수)
156. 「方野李侍郎尹西人慶集崔愚山作二首」(칠언율시 2수)
157. 「憶廣坡，用前韻，時黃坡舟遊驪州.」(칠언율시 1수)
158. 「端陽前二日，苔溪宅與諸人作.」(칠언율시 1수)
159. 「舍南江，陪海居洪駙馬【顯周】，舟遊石見退堂，春山同作五首.」(칠언율시 5수)
160. 「過苔溪李仲近至」(칠언율시 1수)
161. 「走次桂山賦落葉韻」(칠언율시 1수)
162. 「陶村學士宅，逢嶠南趙秀才.」(칠언율시 4수)
163. 「鶴橋至月十一日夕」(칠언율시 1수)
164. 「臨湍縣齋，遇綾山作.」(칠언율시 1수)
165. 「用前韻，贈斗尾所蓄歌妓蘭史.」(칠언율시 1수)
166. 「初十日夜，會飲李錦田光文書屋.」(칠언율시 2수)
167. 「送方野李侍郎【光正】，充副价入燕，次席上韻.」(칠언율시 1수)
168. 「南雨村，見過喜雨日作.」(칠언율시 2수)
169. 「下第後，病起春盡.」(칠언율시 1수)
170. 「力疾赴錦田招日作」(칠언율시 1수)
171. 「過絳山李侍郎宅，雨不絕.」(칠언율시 1수)
172. 「丁酉山過，共拈放翁韻.」(칠언율시 1수)
173. 「海居齋與酉山作」(칠언율시 1수)
174. 「陶村韓承宣宅與鄭學士崔孝廉同集，丁酉山亦過.」(칠언율시 1수)
175. 「沈大林在騎省直廬書，邀社友韓陶村鄭仙樵崔竹下先至，余與西山同赴.」(칠언율시 3수)
176. 「海居駙馬携廚傳歌妓餞，酉山于華陽亭，余與洪春山共赴.」(칠언율시 2수)
177. 「與崔愚山夜赴西社李公一，自錦上還.」(칠언율시 1수)
178. 「復與樊卿，期于巷口，余與西山，乘舟相迓.」(칠언율시 1수)
214. 「口呼靑字」(칠언율시 1수)

『사굴』에서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 중, 이만용의 『동번시초』에 보이는 작품은 34題 칠언율시 54首이다. 앞에서 살핀 『사굴』에서는 작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만용의 『동번집』에 실린 작품과 겹치는 작품은, 146번·150번·162번·163번 네 작품으로, 칠언율시 7수가 겹친다. 그렇다면 『사굴』에서는 작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만용의 『동번집』과 『동번시초』를 통해 이만용의 작품으로 확인된 것은 총 62題 93首(칠언절구 1수, 칠언율시 92수)가 된다.

『사굴』에 실린 전체 작품 총 220題 392首에서 작가가 밝혀진 작품인 51題

161首를 제외하면, 169題 231首의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었다. 그러나 이만용의 『동변집』과 『동변시초』를 통해 62題 93首가 이만용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 중, 詩題의 37%와 작품수의 40%가 이만용의 작품인 셈이다. 이 계산에서 제외된 나머지 작품 역시 이만용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실제 『사굴』에서 이만용의 작품이라고 밝힌 작품들이 『동변집』이나 『동변시초』에 보이지 않았으며, 『동변집』이나 『동변시초』에 실린 작품과 『사굴』에서 이만용의 작품으로 밝혀진 것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題名의 차이나 字句의 출입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굴』과 『동변집』이나 『동변시초』의 작품을 꼼꼼히 비교 검토해야만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만용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사굴』에서는 작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만용의 『동변집』에서 확인되는 작품인데, 각 작품 간에 다소 제명의 차이가 있다. 이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植橘』 일련번호	植橘	東樊集
54	月波亭夜遊, 塗病不赴.	南絳雪寄示近體一首, 兼速月波亭夜遊, 余病未赴, 步韻却寄, 更要會中諸益之和.
55	值雨松隱宅	與諸友, 留宿松隱書屋.
80	肇夏	四月六日, 李怡荊【龍在】宅, 會絳山愚山作.
113	練光亭	陪箕伯西堂金公, 次練光亭韻.
114	寄友人	和西山
115	與友共賦	與岑溪賦雪
121	秋悲	秋音七首
127	聽雨	聽雨
128	和萬柳堤情字韻	憶金小淵使君【漢淳】和萬柳堤情字韻, 寄江東.
146	奉次苔泉金尙書履陽落花韻	奉次苔泉金公【履陽】落花詩韻
151	玉壺舍, 陪春山金公夜飲.【金公名弘根】	玉壺山舍, 陪春山金相公【弘根】與諸公夜飲.
152	雨夜少眠, 遇閱舊詩云云.	閱舊篋, 見海居都尉唱酬之作, 感賦.
162	陶村學士宅, 逢嶠南趙秀才.	陶村學士宅, 逢嶠南趙秀才.
163	鶴橋, 至月十一日夕.	鶴橋冬夜
164	臨湍縣齋, 遇綾山作.	臨湍縣齋, 遇綾山作.
179	彌勒	石彌勒【在坡州道旁】
180	長湍館, 夜與主守尹綱堂【正鎮】話舊.	長湍館, 夜與主守尹綱堂【正鎮】話舊.
181	無題	無題
182	長林【在平壤地皆箕子時種柳】	燕申堂, 與山泉起山吳大山【昌烈】共賦箕城雜詠.

183	淚江【在平壤地】	燕申堂，與山泉起山吳大山【昌烈】共賦箕城雜詠.
184	亭榭	燕申堂，與山泉起山吳大山【昌烈】共賦箕城雜詠.
187	官妓	燕申堂，與山泉起山吳大山【昌烈】共賦箕城雜詠.
193	泛槎亭觀瀑，與起山作.	泛槎亭觀瀑，與起山作.
196	西堂相公六十四歲壽席呈	西堂金公【魯敬】六十四歲壽席賦呈
197	梨花村舍，人日與李友大白同作.	人日梨花村舍，與李友大白作.
199	聞中和新使君到任，先寄二首.	梨花村，聞石村將到任中和，先寄二詩于葱秀驛舍.
200	復與中和倅作	復與石村太守作
201	大白幕次夜飲仍登多景樓小譙	淚城二首
204	次石湖見寄	次石湖見寄韻
206	臨湍郡參，又次玉溪.	臨湍郡齋，次玉溪.
208	留客東林，賦春山花月夜.	留宿東林，賦春山花月夜.
209	東林之曉，風雨忽作，花事已衰，仍與諸人作.	東林之曉，風雨忽作，朝起花事頓衰，仍與沆瀣西山綱堂，復用海居都尉昨示韻.

『동번집』에 실린 작품의 제목이 조금은 더 작품을 지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했지만, 『사굴』에 실린 작품의 제목과 큰 차이는 없다.

다음으로는 미국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 소장본인 『東樊詩抄』와 『사굴』에 실린 동일한 작품에 대한 제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檀橘』 일련번호	檀橘	東樊詩抄
27	遊燕尾洞	北漢山映樓之落花云云
146	奉次苕泉金尙書【履陽】落花韻	奉次苕泉金尙書【履陽】落花韻
147	送羽堂趙侍郎【秉鉉】出按關西	送趙侍郎羽堂【秉鉉】出按湖西
148	琴江訪山泉日作	琴江訪山泉日作二首
149	西隣棋集七夕後二日	西隣棋集七夕後二日二首
150	過苕溪學士	過苕溪學士日作
151	玉壺舍，陪春山金公夜飲【金公名弘根】.	玉壺舍，陪春山金公【弘根】夜飲 / 又屬春山二首
152	雨夜少眠，遇閱舊詩云云.	雨夜少眠，遇閱舊詩云云.
153	健翁金侍郎【陽淳】藍水樓夜集	健翁金侍郎【陽淳】藍水樓夜集
154	復拈宋人韻賦雨	復拈宋人韻賦雨
155	白月波亭，泛舟下挹清樓，與黃坡愚山陪健翁方野二侍郎作，三首.	白月波亭，泛舟下挹清樓，與黃坡愚山陪健翁方野二侍郎作，三首.
156	方野李侍郎尹西人【慶集】崔愚山作二首	方野李侍郎尹西人慶集崔愚山作二首
157	憶廣坡，用前韻，時黃坡舟遊驪州.	憶廣坡，用前韻，時黃坡舟遊呂州.

158	端陽前二日，苕溪宅與諸人作.	端陽前二日，苕溪宅與諸人作.
159	舍南江，陪海居洪駙馬【顯周】，舟遊石見退堂，春山同作，五首.	舍南江，陪海居洪駙馬【顯周】，舟遊石見退堂，春山同作，五首. / 北漢山映樓之落花云云
160	過苕溪，李仲近至.	過苕溪，李仲近至.
161	走次桂山賦落葉韻	走次桂山賦落葉韻
162	陶村學士宅，逢嶠南趙秀才.	陶村學士宅，逢嶠南趙秀才. 五首.
163	鶴橋至月十一日夕	鶴橋至月十一日夕
164	臨湍縣齋，遇綾山作.	臨湍縣齋，遇綾山作.
165	用前韻，贈斗尾所蓄歌妓蘭史.	用前韻，贈斗尾所蓄歌妓蘭史.
166	初十日夜，會飲李錦田【光文】書屋.	初十日夜，會飲李【光文】錦田書屋. 三首.
167	送方野李侍郎【光正】，充副价入燕，次席上韻.	送方野李侍郎【光正】，充副价入燕，次席上韻.
168	南雨村，見過喜雨日作.	南雨村，見過喜雨日作. 二首.
169	下第後，病起春盡.	下第後，病起春盡.
170	力疾赴錦田招日作	力疾赴錦田招日作
171	過絳山李侍郎宅，雨不絕.	過絳山李侍郎宅，雨不絕.
172	丁酉山過，共拈放翁韻.	丁酉山過，共拈放翁韻.
173	海居齋，與西山作.	海居齋，與西山作.
174	陶村韓承宣宅，與鄭學士崔孝廉同集，丁酉山亦過.	陶村韓承宣宅，與鄭學士崔孝廉同集，丁酉山亦過.
175	沈大林在騎省直廬書，邀社友韓陶村鄭仙樵崔竹下先至，余與西山同赴.	沈大林在騎省直廬書，邀社友韓陶村鄭仙樵崔竹下先至，余與西山同赴. 四首.
176	海居駙馬，携廚傳歌妓，餞西山于華陽亭，余與洪春山共赴.	海居駙馬，携廚傳歌妓，餞西山于華陽亭，余與洪春山共赴. 二首.
177	與崔愚山，夜赴西社李公一，自錦上還.	與崔愚山，夜赴西社李公一，自錦上還.
178	復與樊卿，期于巷口. 余與西山，乘舟相迓.	復與樊卿，期于巷口. 余與西山，乘舟相迓，遂拈韻. 江夜已深，笑語徹曉.
214	口呼青字	過筆灘景桀，口呼青字.

『동변시초』의 제명이 조금은 더 상세하지만 『사굴』의 제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동변시초』의 앞부분에 칠언율시 82수가 실려 있는데,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 편차가 『사굴』의 편차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굴』이나 『동변집』 그리고 『동변시초』에 실린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각 판본에 실린 제명은 큰 차이가 없다. 실제 시작품을 비교해 보아도 약간의 字句 출입만이 확인 될 뿐 작품의 전체적인 틀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 작품 간의 자구 출입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만용의 『동변집』에는 평양을 유람을 다녀오면서 지은 작품들이 적지 않다.

『동변집』 권2에 실려 있는 「石彌勒【在坡州道旁】」·「長湍館，夜與主守尹綱堂【正鎮】話舊。」·「山泉使君在浪營，寄詩相邀，走和。」·「燕申堂，與山泉起山吳大山【昌烈】共賦箕城雜詠。」·「大同江舟中作」·「陪箕伯酉堂金公，次練光亭韻。」 등의 작품이 그러하다. 『사굴』에도 이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練光亭」·「仲冬到黃州」·「和萬柳堤情字韻」·「彌勒」·「長湍館，夜與主守尹綱堂【正鎮】話舊。」·「燕申堂，與山泉起山吳大山【昌烈】共賦箕城雜詠。」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동변집』에 실린 작품도 적지 않다.

『사굴』 뒷부분에는 雨村 南尙敎의 칠언율시 7수인 「柳絮」(215번)와 朴齊家의 칠언율시 7수인 「柳絮」(216번) 및 趙景田의 칠언율시 5수인 「柳絮」(217번)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동변시초』에도 이들 작품이 말미에 순차적으로 실려 있다. 다만 『동변시초』에는 南尙敎의 작품이 8수이고 朴齊家의 작품도 8수이며, 趙景田의 작품도 8수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사굴』에 실린 392首 중 작가가 밝혀진 161首를 제외한 231首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중 이만용의 『동변집』이나 『동변시초』에 실린 작품은 총 93首가 된다.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 중 40%가 이만용의 작품인 것이다.

『사굴』에 실린 작품과 『동변집』과 『동변시초』에 실린 작품에, 약간의 題名의 차이와 字句의 출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변집』과 『동변시초』에는 평양의 유람하면서 지은 작품이 보이는데, 그러한 작품이 『사굴』에도 그대로 실려 있으며, 『사굴』 뒷부분에 실린 南尙敎와 朴齊家 및 趙景田의 작품이 그대로 『동변시초』에도 실려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 보건대, 『사굴』은 이만용의 작품 및 이만용이 함께 시사활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題名과 字句의 출입을 세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언급하자면 『사굴』이 『동변집』이나 『동변시초』의 초고본이 아닐까 한다.

이외, 『사굴』의 18번 작품인 「南終雪三休堂」 칠언율시 23수에 대해, 작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함께 시사활동을 했던 南秉哲의 작품으로 확인되었다. 南秉철의 『圭齋遺藁』 권2에 「漫與」이란 제목으로 32首가 실려 있다. 그 竝序에 “壬戌秋，余患失血，其臘月，爲飲水移寓於駱山下石澗亭。尹瑗在傍檢藥餌事，安生順之又來住問疾，皆善詩者也。病懷岑寂，無聊太甚，遂相與唱和，以爲消遣之資，是無題之作，漫與之吟也。及翌春三月，始歸苕泉本第，其間所賦七律，各爲三十韻，編之曰東郭聯吟集。荊田順之之字，秋生瑗之字也，圭齋病僮書。”라는 기록이 보인다. 南秉철의 32수 중 『사굴』에는 23수가 수록되어 있다.

2018 호남 문헌세가 학술대회
장성 행주기씨 금강문중과
기탁 고문헌

일 시 | 2018년 11월 9일
퍼낸곳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 소 |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소촌동)
전 화 | 062) 603-9600 FAX | 062-941-6705
<http://hiks.or.kr/>